JAN 1 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030-1031 1983년 1월14일(금) & 1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January 14 & 15,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양로원건립 일원화 제2차 모임

7인 추진위 구성

갈보리측 불참·"동부"측은 교회무관 강조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위원장 천중환)와 동부장로교회 일부 교인들이 주축이된 토론토·코리언·크리스찬·리타이어먼트·코뮤니티·인코어페레이티드(TKCRCI: 이사장 조병선) 두 단체는 양로원 건립운동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2일밤 한인회관에서 있은 제2차 한인양로원건립운동 일원화 모색 모임의 참석자들은 불참한 갈보리교회 양로원건립위원회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7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택균씨를 소집책임자로하며 구상회씨, 조영호씨등 중재인과 한인위측의 천중환씨, TKCRCI측의 강기웅씨및 갈보리측의 실무자 안병찬씨, 김대억씨등으로 구성된 7인위원회는 2월5일이전까지 통합여부에 관한 회의를 갖고 회의결과를 한인회에 보고토록 위임받았다.

이날 밤7시30분 박인순한인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갈보리교회 양로원건립위원회측은 박한인회장앞으로 서신을 보내 선약때문에 이날 모임에 참석치 못함을 통고해왔다.

이날 2차모임에는 1차모임에 불참했던 TKCRCI측의 강기웅씨, 송승박씨, 조병선씨등 3명과 한인건립위측의 천중환씨, 나상선씨, 송인문씨가 참석했고 중재그룹으로 조한철 회관이전확장위원장, 전택균 전한인회장, 구상회 전한인회장, 조영호 노년회장, 박인순 한인회장과 새 한인회장단 당선자 장순채씨와 변의섭씨가 참석했다.

이날 한인위측은 그동안의 경위설명에서 지금까지 범교민적 운동으로 워커톤등 모금운동과 아울러 정부지원요청작업을 계속해 오던 중 여러단체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한인위측이 일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인사회를 위한 일을하면서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해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위측의 천씨는 "이미 갈보리교회 건립위측과 동부교회교인주축의 건립위측과도 수차례 통합을 위한 대화도 가졌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TKCRCI측은 지금까지 한인위측이 추진해온 것은 양로원 즉 Nursing Home이며 TKCRCI측이 추진해온 것은 노인아파트건립으로 양측이 각기 다른 일을 추진해 온 줄 알았으나 동일성격의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통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12일에 있은 제2차 양로원 일원화모임에 나온 동부장로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된 토론 토·코리언·크리스천·리타이어먼트·코뮤니티·인코어퍼레이션의 대표들. 좌로부터 이사장 조병선씨, 이사 송승박씨, 이사 강기웅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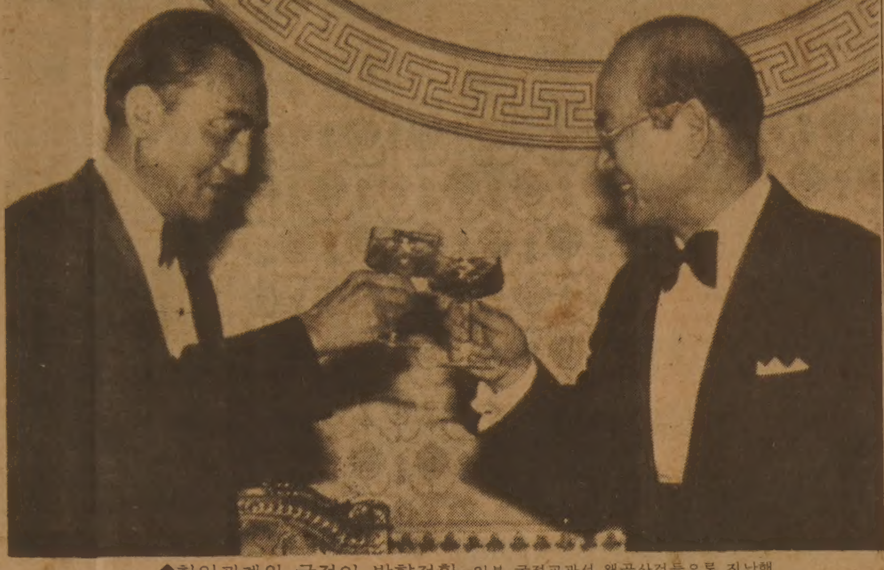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이공사등 공관장급 외교관 11명 이동

(서울 13일=연합)한국정부는 13일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이현홍공사를 라이베리아대사로 임명하는등 11명의 공관장급 외교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동된 외교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호중 말레이지아대사: 벨지움대사
◉최광수 체신부장관: 사우디대사
◉연하구 스페인대사: 덴마크대사
◉최상섭 리비아대사: 스위스대사
◉타라현 파라과이대사: 스페인대사
◉주불대사관 윤억섭공사: 가봉대사
◉안영철 전외교국방연구원교수부장: 가나대사
◉김덕보 외교국방연구원연구관: 에티오피아대사
◉김석규 전외무부미주국장: 파라과이대사



◆한일관계의 극적인 방향전환—일본 국정교과서 왜곡사건등으로 지난해 극에 달했던 한일관계의 악화된 감정이 올해들어 양국 수뇌의 건배로 발전했다. 일본수상의 공식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 영빈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전두환대통령과 나까소네 수상(왼쪽)이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건배, 역사에 기록될 장면을 남겼다.(서울—UPI)

한·일관계에 새장

(서울 12일=연합)전두환대통령과 나까소네·야수히로 일본수상은 한·일 양국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40억달러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했다.

40억달러 경협문제 타결

12일 전·나까소네 2차회담

황선필 청와대대변인은 12일 양국지도자는 청와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및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았다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 친선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했으며, 한국정부의 남북한 최고지도자회의 제안과 88년도 올림픽 서울유치등에서 나타난 전대통령의 적극적외교를 찬양했고 전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안을 지지했다고 황대변인은 밝혔다.

1시간30분동안 계속된 이날 정상회담에서 전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우방국간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황대변인은 말했다.

13개항 공동성명 발표

"한반도 평화 아시아안정에 긴요"

전두환대통령과 나까소네 일본수상은 12일 2차 정상회담을 마친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하는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정부차관을 포함한 각종의 자금협력을 추진하여 금년도의 엔(일본돈)차관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속히 양국정부간의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나까소네 공동성명은 또 「양국지도자는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직통전화선을 조속히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의하면 양국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및 기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 이 지역의 평화·안정및 번영을 위해 계속적인 상호협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측은 산업·기술·문화협력은 물론, 정부·의회및 민간수준에서의 활발한 상호 교환을 추진한다.

—나까소네수상은 전대통령내외가 편리한 시기에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했으며 전대통령은 이 초청을 기꺼이 수락했다. 방문시기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한다.

엔차관 7년간 제공

한·일 외상회담 합의

(서울 12일=연합)이범석 외무장관과 방한중인 신따로·아베 일본외상은 12일 중앙청 외무장관실에서 열린 양국외상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차관에 대한 정확한 액수와 제공시기에 대해 합의를 봄으로써 20개월간이나 끌어온 차관협상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은 82년부터 소급해서 7년간에 걸쳐 ODA(해외원조기구)차관 18억5천만달러와 수출입은행차관 21억5천만달러를 포함한 총 40억달러(미화)를 한국에 제공한다.

이들 차관에 대한 세부절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ODA차관중 첫해에 제공될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는 1월말경 도오꾜에서 양국실무자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양국외상들은 차관문제외에도 (1)오래동안 중단되어온 한·일자료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소집하고, (2)양국외상회담을 필요시에는 언제나 개최하고, (3)한·일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5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란 대 ROLEX 귀
콤 리 가장 믿고 살수있는 국
화 점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선
장 물
품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7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5%		8%
90일	10%		8.5%
180일	10%	9.75%	8.5%
365일	10%	9.7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TEC
전자계산기
저울

* 전자계산기… $395부터
* 저울…… $795부터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세일 4800 per 100
*모든 기계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 10 HURONTARIO ST.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BAUME & MERCIER
GENEVE
1830

73 countries over the 5 continents
International guarantee
ㅁ고급 금시계
ㅁ각종 보석및 반지

Asst. Manager
지니·장(Mrs.장)
TORONTO EATON CENTRE
DeWitt JEWELS LIMITED
3RD LEVEL Main Floor
979-99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스왐프·갱을 잡아라"

현상붙은 직업은행강도단

메트로토론토의 동부지역 은행을 전문으로 터는 갱에 2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 2~3명으로 보이는 이들은 10개월간 모두 9개 은행 강도 로 8만6천달러를 강탈했다.

경찰은 일명 "스왐 프·갱"의 몽타지를 작성했다. 그중 한장은 1명이 "나는 스왐 프에서 3년을 살은 특공사수다"라며 장총을 은행직원과 손님에게 겨누고 있는 모습이다. 이사이 다른 1명은 돈을 비닐백에 담은 후 대기중인 자동차로 도주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아직 아무도 이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지는 못했고 다른 단서도 일체 잡히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스왐 프(Swamp)라는 말은 베트남을 위시, 이들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간주 매우 위험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현상금은 은행협회에서 1만달러, 경찰에서 추가로 1만달러를 걸은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강탈한 돈은 그간 다 소모했을 것이므로 조만간 다시 강도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경찰이 작성한 범인 1과 범인 2의 몽타지 사진.

수법이 프로페셔널급으로 보이는 이들중 1명은 172Cm정도키에 30세정도, 갈색머리와 눈옆에 상처가 있다. 또 한명은 비슷한 키에 약간 뚱뚱하다.

이들을 보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전화 967-2371 또는 967-2347로 연락하기를 바란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립스 7연속무패에 종지부

앤더슨 3골 불구 보스톤에 피습

죤·앤더슨의 해트·트릭(1게임에 3골기록)에도 불구, 토론토하키 메이플·립스는 마지막 피어리드에서 보스톤·브루윈스의 베테란 릭·미들톤에 1골을 뺏기어 6:4로 패배했다.

7연속 무패(5승2무)를 기록, NHL최하위에서 벗어나 프레이오프진출의 희망을 걸고 있던 립스는 12일밤(현재순위 17위) 메이플·립스·가든에서 열린 NHL 종합2위 보스톤·브루윈스와의 대전에서 일격을 당했다.

패배를 맛본 립스의 앤더슨은 "내가 기록한 골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우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것만 바란다"고 말했다.

립스의 코취 마이크·니콜락은 "팀의 상승무드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오늘 패배를 했어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몬트리얼에서 전출온 이래 지난 9게임에서 계속 포인트를 못 땄던 립스의 새 인기주 댄·다우스트는 이날 보스톤 수비에 잡혀 1점도 못 올렸다.

립스는 13일부터 로드게임(원정경기'에 나서 13일 미네소타와, 15일 이트로이트와 대전한 후 17일 세인트·루이스와 홈게임을 가진다.

▶우리는 친구—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나타난 광대에게 한 어린소녀가 코로 애무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 환자들을 위로하는 이 광대는 윌리엄·핀달목사. 〈뉴욕〉

비행기 추락원인 소용돌이기류?

11일 토론토북방에서 추락한 선교회사소속 젯트여객기는 "대형 젯트여객기의 뒤를 따라 생기는 소용돌이 기류에 휘말려 추락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이론이 사고원인으로 유력시됐다. 450만달러짜리 8인승 소형 젯트기는 영국 런던서 온 에어·캐나다 소속 대형 L-1011 트리스타 점보젯트기 뒤를 따라 토론토공항에 착륙 접근중이었다.

에어·캐나다 트리스타기는 사고 1분후 토론토공항에 안착했다.

연방조사관들은 "조종사들은 비행기간의 거리규정을 무시하고 뒤를 바짝 좇는 일이 가끔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관들은 사고 비행기가 여객기와 6마일의 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추측했다.

대형 여객기의 날개에서 생기는 소용돌이 기류는 시속 수백마일로 따라오며 한 장소에 2분간 머무르기도해서 소형비행기에 큰 위험이 된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웰페어 속인 12자녀 어머니

6개월 징역형 선고받아

12명의 자녀를 가진 42세의 토론토거주 여인이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 웰페어 즉 생계보장비를 타먹은 혐의로 6개월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웰즐리·스트릿의 조앤·미리안·네빌즈여인은 79년 7월부터 81년 2월까지 7천달러를 타 먹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자인했다.

함께 기소된 그녀의 4번째 남편 앨버트·윌리엄·네빌즈(65)씨에 대한 혐의는 기각됐다.

온타리오주법원의 재·블리맨즈판사는 네빌즈여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5,400달러를 상환토록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 케리·에반스씨는 네빌즈여인이 웰페어를 탄 기간동안 5개의 직장에서 연26,000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여권업무 지방으로 분산

4월1일부터 부산,대구,충북등

한국정부는 민원처리개선책의 하나로 서울에서만 실시되는 여권업무를 각 지방행정처로 결정했다.

12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무부여권과에서만 실시되던 여권발급, 교부, 기재변경, 반납등의 업무가 오는 4월1일부터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등의 시청및 도청으로 이양된다.

경남은 도청이 이전될 예정인 창원에서 오는 7월1일부터, 또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경북등은 84년 4월1일부터 여권업무를 이양받는다.

한편 여권업무 지방분사후 중앙의 외무부 여권과는 주로 외교관, 관용, 재외국민 여권업무를 맡게 되며 중앙통제역할을 한다.

여권업무 지방이양에 따라 병무청 관계업무 역시 지방병무청으로 이전된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LA올림픽 은메달의 앞면(왼편)과 뒷면.

84년 LA올림픽 金·銀·銅메달

金메달 앞면 男女의얼굴 월계수로 감싸고 뒷면은 심벌마크「흐르는 별」조각

IOC의 승인을 받아 LA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발행한 84년 LA올림픽 메달의 앞면은 남녀의 얼굴을 월계수가 감싸고 있다. 올림픽의 심벌마크인 흐르는 별이 조각됐고, 아랫부분에 종목어 표기돼 있다.

올림픽 메달은 선수에게는 영광을 뜻하지만 세계각국의 수집가들에게는 인기 수집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메달을 발행한 미국은 4차에 걸친 동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동안 1932년 LA올림픽때 공식기념메달을 남기후 이번이 두번째다.

특히 메달은 각국의 특색을 가미해 고요의 전뿔과 경기장등을 섬세하고 화려하게 조각해 예술적가치도 매우 높다.

기념메달이 공식 발행된 것은 1908년의 제4회 런던올림픽때 부터다.

80년 22회 모스크바대회까지 발행한 기념메달은 모두 16종.

한편 LA오륜조직위는 금화10달러짜리 1종과 은화1달러짜리 2종을 내년1월부터 발행키로하고 각국 수집가들의 시청을 받고있다.

프로풋볼, 수퍼보울 高地향한 熱戰

LA 레이더스등 8強확정

1월30일 파사데나로즈보울서 열릴 수퍼보울고지를 향한 플레이오프(준결)제1라운드의 험한 고개를 넘은 8강팀이 결정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친 8게임의 준결전서 1차 관문을 통과한 팀은 LA 레이더스, 마이애미 돌핀스, 뉴욕젯츠, 샌디에고 차저스, 그린베이 패커스, 달라스 카우보이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워싱턴 레드스킨.

2차전의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앞에 적은 팀이 홈팀이고 시간은 LA로칼시간이며 괄호안의 팀은 도박계서 이길 것으로 예상하는 팀이름.

◉15일(토요일)

▲LA레이더스-뉴욕젯츠, 낮1시(레이더스)

▲마이애미 돌핀스-샌디에고 차저스, 상오9시 30분(팽팽하게 맞서 예상못함)

◉16일(일요일)

▲워싱턴 레드스킨-미네소타 바이킹, 상오 9시 30분(레드스킨)

▲달라스 카우보이-그린베이 패커스, 낮1시 (카우보이)

1차전 관문을 통과한 8강팀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LA 레이더스 27, 클리브랜드 10 ▲마이애미 28, 뉴잉글랜드 13 ▲워싱턴 31, 디트로이트 7 ▲그린베이 41, 세인루이스 16 ▲샌디에고 31, 핏츠버그 28 ▲뉴욕젯츠 44, 신시내티 17 ▲달라스 30, 탐파베이 17 ▲미네소타 30, 애틀란타 24.

싱싱刑務所 폭동

〈오시닝-AP〉 싱싱형무소로 알려진 뉴욕주립오시닝형무소의 죄수폭동은 11일 상오 인질로 잡고있던 교도관 17명을 전원석방함으로써 나흘만에 평화적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행 화물수송기 방사능실은채 추락

미시건서 3명사망

〈디트로이트〉 한국으로 보낼 방사능물질을 실은 DC-8화물수송기가 11일새벽 디트로이트 공항을 이륙한후 늪지대에 추락, 탑승했던 승무원 3명이 전원 사망했다.

적재한 21파운드의 방사능물질은 미국서 판매할 화재경보기제작에 사용하기위해 클리브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송중이었다.

謹賀新年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계해년의 밝은 아침을 맞아 여러분의 각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인상공인협회 일동 드림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1. 금번 상공인 협회에서는 온타리오 상공인협회 회장 Mr. Feibey및 각계각층의 초청인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Reception을 갖고자 하오니 회원제위께서는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Royal York Hotel Tudor Room

◉일시: 1983년 1월29일(토) 오후 6시

2. 협회 Logo 당선작 발표및 시상

그간 짧은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보내 오셔서 본협회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한데 감사함과 더불어 기쁨을 금할수 없읍니다.

심사는 Canadian Artist 3인과 협회선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읍니다.

◉당선작: 송순태

◉가 작: 김문웅, 이종하 ◉장려상: 최재철

3. 대외사업

1. 금년도 본협회 봉사사업으로 신규 또는 전업하고져 하는 교민에게 아래와 같은 분야에 Consulting 하고자 합니다.

◉분야: Accounting, Auto Service, Fast Food및 Restaurant Business, Printing, Trading, Audio & Video, China & Gifts, General Business.

◉상담장소: 협회사무실. 240 Duncan Mill Rd. #606 Don Mills Ont.

◉전화: (416)444-3716

2. 우수경영자 표창.

본협회는 매년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공인으로서 타기업인에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져 합니다.

◉장소및 일시: Royal York Hotel Tudor Room, 1983년 1월29일 오후6시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1면에서 계속)

양로원 건립 일원화 기술상 난제 많을듯

TKCRCI 이사인 강기웅씨는 이날 회의 서두에서 "일부에서 마치 동부장로교회(목사 홍순관)가 양로원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된 것은 잘못이며 현재로는 교회와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당초 홍목사가 이사장인 동부장로교회 주택위원회로 출발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Toronto Korean Christian Retirement Community Inc.로 법인체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조병선씨를 이사장, 윤승렬씨를 총무로 이병헌·송승박·강기웅씨등 5인의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부장로교회 교인들이다.

한인위측은 이날 지난 12월30일 이미 연방 모기지·주택공사(CMHC)에 지원정식신청을 끝냈다고 밝혀 통합원칙에 합의한 양측이 어떤식으로 일원화를 추진할지는 주목된다.

이날 모임에서는 두번이나 일원화모임에 불참한 갈보리측에 다시 한번 의견발표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과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갈보리건립위측이 별로 통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의견이 맞섰으나 한인사회의 분열을 막자는 의도에서 7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인양로원 건립문제는 연방주택공사 CMHC측이 여러개 단체보다는 하나로 통합된 단체가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CMHC로부터 주택자금 1천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갈보리측과, 범교민적·공개적 건립운동을 추진해온 한인건립위, 은밀히 노인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TKCRCI측이 서로 자신의 단체쪽으로 다른 단체들을 끌어오려는데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교민사회에서 잡음이 커지자 한인회는 지난 12월15일 1차 일원화모임을 갖고 대화의 기회를 모색했으나 갈보리와 TKCRCI측의 불참으로 한인위측의 경과보고만 듣는데서 끝났었다.

중혼죄로 法廷선 현대판「카사노바」

1백명女子와 결혼

〈피닉스, 아리조나주- 〉 세계각국의 1백명이상의 여자들과 결혼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진 현대판 카사노바가 중혼및 사기혐의로 기소당해 지난주부터 재판을 받고있다.

53세의 나이답지않게 숱많은 검은머리의 지오반니·비글리오토가 체포된 것은 81년12월28일, 한달 열흘전인 11월18일에 결혼했던 메사거주의 부동산 브로커 패트리샤·기디너여인(41)의 고소에 의해서다.

결혼 8일전 스왑밋에서 비글리오토를 만나 결혼했다는 가디너여인은 『그에게 속아 집을 팔았는데 이 새남편이 집판돈 3만6천5백달러를 챙겨갖고 도주했다』면서 사기및 중혼혐의로 고소한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딸의 결혼저축금과 내침대보까지 갖고 달아났어요』라고 가디너여인은 호소.

체포당시 경찰은 비글리오토의 거처를 한식품점원에게서 알아냈는데 이점원은 81년6월13일 비글리오토와 결혼했던 전부인중 하나였다.

1백 가명가진 50代 "女性에지루함 도와줬다"

1백가지이상의 가명을 갖고있는것으로 알려진 비글리오토는 6년전 장물운반혐의로 체포될당시 이미 82명의 여자들과 결혼한 경력이 있다고 수사관들에게 털어놓았었다.

82번의 결혼상대는 주로 미국여자들이었으나 게중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인도 있고 멀리는 홍콩과 일본여자도 포함되어있다.

『그는 82명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었읍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어디서 어떻게 만났으며 그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까지도…』라고 당시의 경찰관들은 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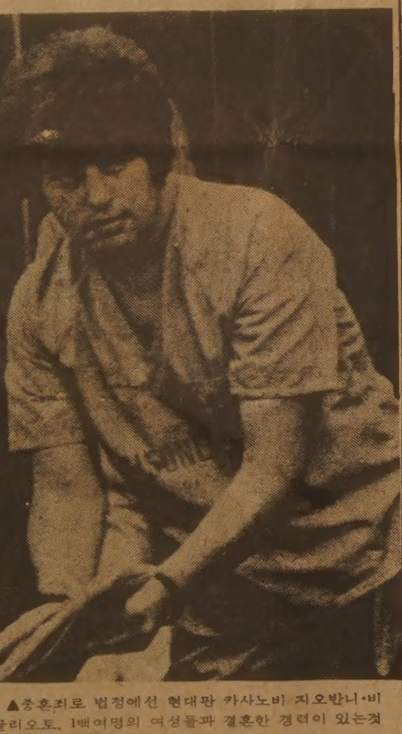
이번 재판시작직전, 비글리오토는 『검찰측 증인들이 내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MGM영화사에 팔아 넘길려고 한다』면서 재판지를 타주로 옮겨달라고 청원했으나 아리조나주 마리오파카운티지방법원 루거스·풀터판사는 이를 거부, 재판을 개정한것이다.

지금까지 비글리오토는 스스로를 변호해왔으나 지난주부터는 관선변호사 리처드·스타이너가 변호에 나섰다.

재판첫날, 스타이너변호사는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비글리오토가 1952년부터 58년까지 실제로 정신병치료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스타이너변호사는 비글리오토의 중혼에 대해 『사기를 하려고한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성들을 「여왕」으로 대접, 인생의 지루함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변호했다.

이어 스타이어변호사는 『피고는 인생을 사랑하며,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을 사랑한 사람』이라면서 『그는 극적인 즐거움을 창조, 여성들에게 이런 그의 환상을 함께 누리도록했을뿐』이라고 덧붙였다.



▲중혼죄로 법정에선 현대판 카사노바 지오반니·비글리오토. 1백여명의 여성들과 결혼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피닉스- 〉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48〉

金聖鍾작

출발 ㉙

창의 정체 눈치챈 그녀는 돈을 요구…

샤워를 하고나서 그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여자에게는 손도 대지 않고 그는 잠에 들었다.

잠을 깼을 때 그는 여자가 먼저 일어나 있는것을 보았다.

여자는 그의 양복 저고리를 뒤지고 있었다.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손에 들고있던 것들을 떨어뜨렸다. 달러와 패스포트였다. 다른 패스포트 네개도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거지?』

그는 차갑게 여자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몸을 제공했으니까 몸값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누가 보내서 온거지?』

『누가 보내다니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다만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나는 네 몸에 손도 대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난 너무 취했었는데….』

『국제 들치기인가?』

『아무렇게나 생각하세요. 들치기이 따로 있나요. 돈 떨어지면 들치여 하는거죠. 헌데 선생님은 패스가 다섯개나 있네요. 국적도 이름도 모두 다른 패스 말이에요.』

그녀는 야릇하게 웃어 보였다.

『너는 보지 말아야 할걸 봤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값만 적당하다면….』

『염치 없는 계집이군.』

그는 여자에게 다가섰다.

朴男 그림

여자가 뒷걸음질쳤다.

『이러지 마세요. 경찰이 오고있으니까. 내 말만 들으면 경찰을 되돌려 보낼수도 있어요.』

그는 여자에게 친절을 베푼것을 후회했다. 여자에게 약한 자신의 단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그는 여자를 처치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것은 오래두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할 일이었다. 여자를 살려두면 다섯개의 패스포트는 무용지물이 된다. 패스포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수가 없다. 움직이려면 여자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어떻게? 돈으로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그는 자신이 서지않았다.

그는 인터폴이 찾고있는 중요인물중의 한명이었다. 그는 인터폴이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자신을 찾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그만실수도 결코 용납하려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가혹할만큼 엄격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오래 지탱시킬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얼마를 주면 입을 다물어주겠다는 거지?』

『그야 많을수록 좋죠.』

그의 눈에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추하게 비쳤다. 그녀는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게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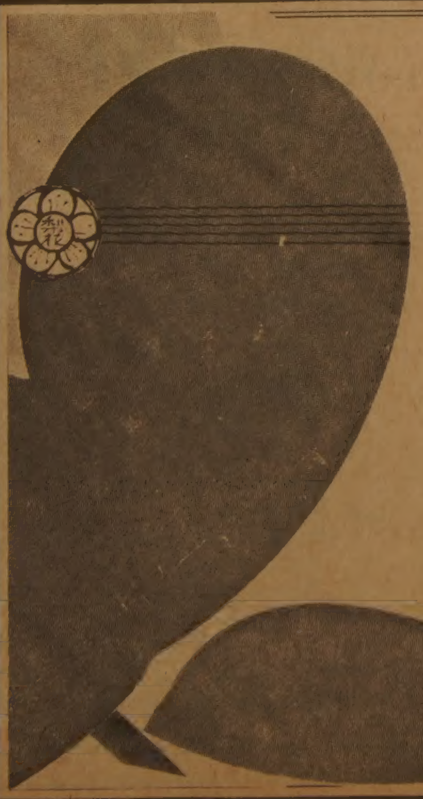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三國志 541 글·高羽榮 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수일
252-7377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모교창립100주년
이화여대동창회
기금마련 음악회
□일시 : 1983년2월5일(토) 오후8시
□장소 : ST. LAWRENCE CENTER
TOWN HALL
27 FRONT ST. EAST
□출연자 : 피아노 김현순 이인선
박성희 고인숙
박윤심 홍현정
성 악 장영자 이주연
공영옥 김진화
박성애 김영애
□내 용 : 한국가곡및 애창곡
피아노독주및 이중주등
□티켓 구입처 : 이주연 275-1029
공영희 277-9350
송복희 536-4250
□티켓 : 10불
이대 동창회

부산중·고교 동문회
신년파티
부산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다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자 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1월22일(토) 오후6시
장 소 : 25 Pettit Dr. Weston, Ont. (키플링×west way)
연락처 : 249-4595 Mr. 허
743-5830 Mr. 심
부산중·고교 동문회

韓半島정세·經協등 논의

全大統領·나까소네日首相, 어제하오 40분간 單獨회담

"韓·美·日 3角안보 더욱긴요" "日、民主統一방안 적극 지지"

나까소네 어제來韓… 오늘 2次회담

全斗煥대통령은 11일 하오 청와대에서 일본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을 맞아 1차頂上회담을갖고 韓半島정세를 포함한 東北亞정세및 유동하는 국제정세전반과 양국의 경제협력확대문제등 상호관심사에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양국 頂上은 이날 훈장및 선물교환에 이어 하오5시15분부터 書齋에서 약30분간단독으로 가진 회담에서 韓日양국은 앞으로 지난날의 불행했던 과거를 씻고 互惠平等원칙에서 선린관계로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진정한 동반자로서 우호협력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것으로알려졌다.

양국頂上은 또 현재의 심각한 국제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해 西方동맹국 상호간의 이해와 결속이 더욱절실하며 東北亞와 韓半島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韓·美·日의3角安保협력체제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것으로 전해졌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日本의 지원과 한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위해 산업기술협력을 포함한 日本의 계속적인 경제협력확대、韓日양국간 무역균형유지의 필요성등을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은 특히 太平洋頂上회담과 관련、그배경과 필요성및 기본성격과 이회담이 실현될 경우의 주요議題등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이에대한 日本측의 적극적인 협력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全대통령은 이와함께 在日한국인이 日本내에서 정당한 보호와 대우를받도록 日本정부가 각별히 배려해줄것을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나까소네수상의 이날 청와대예방에는 한국측에서 金埈成부총리 李範錫외무 姜慶植재무 金東輝상공 朴贊鉉총무처장관 崔慶祿駐日대사 咸秉春청와대비서실장 鄭順德政務제1수석비서관등이、일본측에서는 아베(安倍晋太郞)외상 다께시다(竹下登)大藏相 마에다(前田利一)駐韓대사 후지나미(藤波孝生)내각官房부장관등이 배석했다.

나까소네수상은 12일 상오 국립묘지참배에 이어 丁來赫국회의장 金총리를 차례로예방한뒤 全대통령과 2차회담을 가지며 金총리주최 오찬참석과 기자회견을가진뒤 하오 4시 離韓한다.

나까소네수상은 이에대해 『韓日양국은 가장 가까운나라로 서로 친밀해지고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 日本은자유세계의일원으로 자유세계의결속과번영을위해 적극기여한다는 방침아래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의 우호협력증진을 더욱 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나까소네수상은 또 양국관계와 관련、차원높은 양국관계의 발전에대한 全대통령의 견해와 韓日관계의 새시대를 위해 두나라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나까소네 수상은 특히 全대통령이 제의한「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매우유효적절한통일방안으로평가한다고 말해 우리의 통일방안에대해 전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양국頂上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나눠 해결해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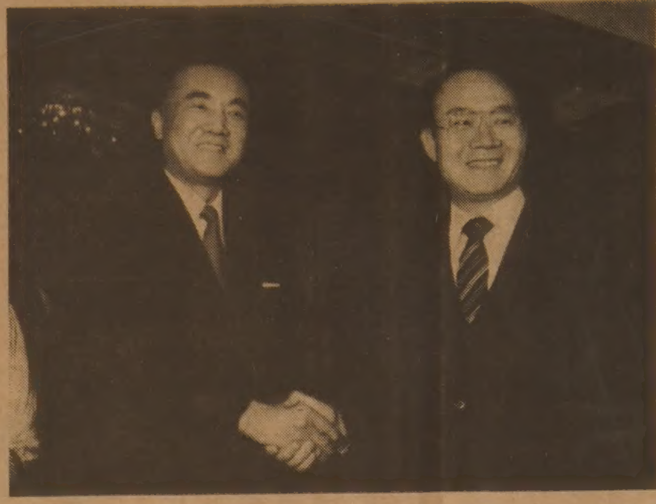
양국頂上은 1차회담에 이어 12일상오 2차회담을갖고 40억달러의 經協문제를 비롯한 무역逆調시정문제、산업기술협력문제등 양국의 국민적이해를 바탕으로한 각분야에서의 우호증진방안에 대해보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頂上은 12일하오 頂上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1차 頂上회담이 진행되는동안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영부인 접견실에서 나까소네부인 쓰다꼬(蔦子)여사와 별도로만나 환담했다.

나까소네 수상은 이에 앞서 이날 하오 3시45분 JAL특별기편으로 부인 쓰다꼬(蔦子)여사와 52명의 공식·비공식 수행원과 함께 金浦공항에 도착、金相浹국무총리 내외의 영접을 받은뒤 공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어 숙소인 新羅호텔로 직행、여장을 푼뒤 청와대로 全대통령내외를 예방했으며 하오7시에는 全대통령내외가 베푼 만찬에 참석했다.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왔던 韓日양국은 11일 두나라頂上이 첫 相面을 [illegible]으로써 새로운 協力시대를 다짐했다. 사진은 全대통령이 11일 하오 청와대에서 첫 공식訪韓한 나까소네수상과 악수를하고있다.

"새次元 관계 구축을"

全대통령、만찬사서 強調

全斗煥대통령은 11일『韓日두나라 국민은 과거의불행했던 양국관계에대해서는 겸허하게 서로 省察하고 心機一轉의 자세와 결의로써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구축되기를 강력히 염원하고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을 위해 만찬을 베푼자리에서 晩餐辭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이번에 韓日 양국정부가 상호신뢰와 협력정신에 입각해 그간 현안으로 돼왔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것은 금후의 양국관계를 위해 매우 튼튼한 디딤돌이 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韓日양국관계의 역사는 文獻史料에나타난 것만으로도 천년이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나、그러한 과거의 관계가 반드시 순탄한것만은 아니었다』고 지적、『앞으로 다가올 양국관계의 千年史는 변함없는우호와 협력의 관계가되도록우리양국이 공동의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80년대의 준엄한 국제정세를 살펴볼때、韓日양국이 인접우방으로서 뿐만아니라 자유진영의 一員이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도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深化시킬필요가있다고 하겠다』고말하고『각하의 이번 訪韓을계기로 韓日양국이함께 내디딘 한걸음은 우리두나라가 太平洋을넘어 세계를향한 同伴者로서 공동번영을 향한 유대를 더욱 굳게다짐하는 도약의巨步이며、따라서 이것은 금후의 천년을향한 역사적인 里程標가될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밝혔다.

4백억円 3월前 공여

40億弗중 ODA1차年度分 7차례 年15%씩 증액

일본이 經濟協力의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제공할 40억달러의 차관중 ODA(公共開發借款)1차年度分은 4백억円(1억8천만달러相當)으로 확정됐으며 이4백억円은 오는 3월 이전에 供與키로 합의된것으로 알려졌다.

한외교소식통은 11일『經協교섭중 ODA分과 JEXIM(일본輸出入은행)分등의 규모가 양국실무자간에 의견접근을 보았다』면서『ODA는 1차연도를 82년으로잡아 4백억円에서 7차례에걸쳐 年15%씩증액시키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소식통은 ODA의 전체규모에 대해선 일부보도된대로라면서『한국측은 ODA를 5년간 分割하여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일본측은 프로젝트別로 심사、매년增額시킨다는 방침을세워 결국 年15%씩 증액시키기로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經協에 관한 구체적인액수와 공여기간、공여방법등은 12일에 열리는 양국외상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라면서『양국실무자간에 사전합의된것은 ODA 1차연도분과 供與시기밖에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80년 일본으로부터 공여받은 ODA현식의 엔借款은 1백90억円이다.

한편 83년도분 ODA공여시기에 대해·한국은 일본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3월 이후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제공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2차연도분 이후의 공여시기에 관해선 한국측에서 제시한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검토한후에 결정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ODA는 金利가 年4%로 低利일뿐만 아니라 상환조건도 7년据置 18년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차관중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이다.

추락 蘇衛星 23일께 大氣圈에

原子爐포함 2개胴體

【워싱턴UPI=聯合】고장난 소련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로부터 떨어져나온 [illegible] 동체부분은 대기권에 [illegible] 원자로를 포함한 [illegible] 큰 동체부분은 [illegible] 추락하고 있다고 [illegible] 11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것은 아직 지구상공에 떠있는 1402호의 핵원자로」라고 말했다.

이 원자로는 무게 2천7백21kg의 대양정찰위성인 코스모스 1402호의 가장크고 무거운 부분으로 이 위성의 부분품이 대기권을 통과、지구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소식통들은 코스모스 1402호의 3번째로 작은부분품은 지난며칠동안 다른2개의큰동체부분보다 빨리대기권에돌입、타버렸다고말했다.

이들 2개의 부분은 매89분24초마다 지구를 한바퀴씩 선회하는데 지난주말동안 고도가 약8km낮아졌으며 현재의 하강속도로 내려오면 오는23일부터는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소식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7일 발표된 소련의공식성명에따르면 문제의 원자로부분은 작년12월28일 코스모스 1402호로부터 분리됐으며 분리된 모든부품들이 대기권을 진입할때 「완전히」파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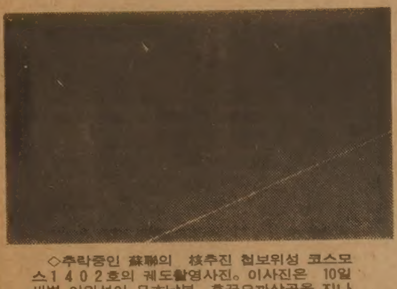
그러나 서방의 우주전문가들은 현재로는 동체부분이 지구상의 어느지점에 떨어질지 알수없다고 말하고있다.

다른 20餘個도 서로衝突 위험

【휴스턴=聯合】지구로 추락중인 코스모스 1402호 외에도 소련의 또다른 핵추진 첩보위성 20여개는 서로 우주충돌을 일으킬 위험을안고 지구궤도를 선회하고 있다고 11일 저명한 美우주 전문가가 밝혔다.

우주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련 우주계획에 관한 저서를 펴낸바있는 제임즈·오버그씨는 이날 이러한 원자로들이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의 파편들과 충돌할위험이 매우높다고 지적했다.

오버그씨의 이러한 언급은 고장을 일으킨 소련의 핵추진 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가 지상으로 떨어지고있는것과 때를 맞추어 나왔다.



◇추락중인 蘇聯의 核추진 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의 궤도촬영사진。이사진은 10일 새벽 이위성이 日本남부 후꾸오까상공을 지나갈때 촬영한것이다。(共同통신제공) 【후꾸오까 UPI電送=聯合】

借款조정기구 추진

西方 40개銀行、開途國 外債문제대처

【워싱턴AP=聯合】일본을 비롯한 서방9개국의 약40개 주요민간은행들은 10일 비공개회합을 갖고 개도국들의 외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차관조정기구」의 설립을 논의했다고 이 회의의 한 대변인이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않은 이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는 어디에서 열렸는지를 밝히지 않은채 현재 논의 중인 「국제차관조정기구」계획대로 설립될 경우 이기구는 채무국의 경제상황및 대세계은행차관 상환계획등에 관한 정보들을 민간은행들에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민간경제의 이기구가 개도국들의 신용상태를 파악、관계자료들을 은행들에 제공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외채상환 불능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타락현상 野黨대회 民正、自制요구키로

民正黨은 11일상오 李載濚대표위원 주재로 黨職者회의를 열고 야당의 일부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참석대의원에 金品을 제공하고 시가행진을 하는등 타락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이런 현상의 확산을 막도록 3黨원내총무회담을 통해 야당측에 自制해줄것을 요청키로했다.

社會漫評

어제 오늘「태극기」를 다시한번 봤읍니다…

地平線

옛날의 교통수단은 사람의 두 발이었다。개화기 전까지만 해도 영호남에서 한양나들이를 할양이면 짚신을 허리춤에 차고 잘걸어서 하루에 1백리、그렇지 못하면 7·8십리를 걸어서 가야 했다。동이 트면 걷기 시작하여 진종일을 걸었다가 해가 저물면 길가 주막집 목로방에 여장을 풀곤 하면서 천리길을 열흘이 넘게 걸었다。▼그러나 여유가있는 양반들은 좋은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기도 하고 더러는 종에게 고삐를잡게하며 짐꾼까지 거느리는 호화판도 있었다。이와같은 길손들이 오가는 한길가에는 하루 노정에 맞게 역촌이 있고 또 주막거리도 생겨서 숙식과 휴식에 불편이 없었다。날이 궂으면 며칠이고 쉬어가는데도 지장은없었다。▼더러 조정의 급보를 지방관아에 전하거나 지방의 수령방백들이 조정에 급고할 사단이 생기면 역촌에 배치된 역졸과 역마로 치닫아 시간을 줄일수 있게 되어있었지만 인는 예외에 속한다。백성들은 주막에 쉬고쉬어 가게되는데 주막거리에는 으레 떡전과 짚신전이 있어서 길손에게 편의를 주었다。▼다른 한편으로 대관이나 사대부의 나들이 길에는 남여나 사인교 같은 가마를 교꾼들이 메어서 태워다 주었으므로 발에 흙을 묻히지않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교통수단의 호사로 따지자면 왕이 타던 연이나 정승들의 나들이에 쓰이던 외바퀴수레 즉 초헌을들수가 있겠으나 일반적인것이 아니었음은 말할나위도 없다。▼그러다가 오늘처럼 많은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소위대중교통수단이 등장한것은일천하다。기차·전차·자동차에서 대형선박과 점보기의등장은 20세기에 이룩한 인류의 가장 특징적인 문명현상의 하나라 할수가 있다。이와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비중은 담연히 개인적인 그것에 우선하고 또 교통행정상의 비중도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무어니 무어니해도 버스가 그 주역이다。그런데 서울의 버스교통사정은 1백점 만점으로 하여 고작 20점 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11일자 한국일보 10면보도)。배차시간이나 환승률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나 승객밀도와 정류장조건은 최악이란 평가다。▼도시 대중교통수단의 대종인 버스교통실정이 이토록 한심하다는 것은 시민생활의 원활한 영위가 경색되었다는 뜻이다。시간이 걸리고 비능률적이기는 하였으나 느긋하고 보다 인간적이었던 지난날의 보행이나 마차와 달구지에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도 단순한 회고취미만으로는 어렵게 된것이 지금 도시교통수단의 실정이다。도시의 버스교통난이 면해야할 날은 과연 언제쯤 일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illegible]
교육·[illegible]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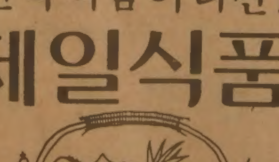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서울대학교 동창회
신년파티

서울대 동문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는 우리 서울대인의 신년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사귀임과 흥겨운 하루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ㅁ서울대학교 동창회 '83신년파티
ㅁ 때 : 1983년 1월29일(토) 오후 6시30분
ㅁ 곳 : Triumph Sheraton Hotel, Canada Room (Hwy 401 & Keele St.)
ㅁ회비 : $25.00

서울대학교 동창회

이민수속에 관한
제반사항
＝무슨 내용이든 기밀엄수합니다.＝

ㅁ가족 관계
ㅁ영주권 관계
ㅁ유학생 및 여행비자등.

자세한 상담은
몬트리얼의 Mr. 윤에게
연락하세요.
☎ : 1-(514)-933-0217
1827 St. Cathorin,
Montreal H3H 1M2

Consultim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Consultation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오랜所望 이루어져 기쁘다"

나까소네 日首相 첫공식 訪韓하던날

"盛大한 환영에 感激"
새 里程標…祝杯제의
공항·沿道표정 "숙연"

韓·日頂上 첫 相見禮

○…韓日國交 정상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대면한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 日本수상은 11일하오 靑瓦臺에서 첫相見禮를 했다.

全대통령과 염부인 李順子여사는 이날 하오5시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靑瓦臺에 도착한 나까소네수상 내외를 현관에서 맞아 따뜻한 악수를 교환하고 첫인사를나눴다.

全대통령은 나까소네수상에게 『방한을 환영합니다』고 인사말을 건네고 나까소네수상은 『감사합니다』고 답례.

양국頂上은 내외신기자들이 포즈를 취해줄것을요청하자 양국頂上내외가 나란히서있는 모습과 악수하는 장면을 再演해주기도.

나까소네수상은 이어 全대통령의 안내로 현관앞에 마련된 芳名錄에 서명했으며 이사이 全대통령은 나까소네수상을 수행한 아베(安倍)외상, 다께시다(竹下)대장상등 舊面인 日本측수행원과 악수를 나누었다.

양국頂上은 小접견실로 자리를옮겨 全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나까소네수상, 왼쪽에 쓰다꼬여사, 염부인 李여사순으로 정좌한뒤 잠시 환담.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각하 내외분께서 한국을 방문해준것을 온국민을 대표해진심으로 환영합니다』면서 양국사진기자들을 보고『인상을 좋게 찍어달란』고 말해 잠시 웃음이 일기도.

나까소네수상은 이에대해 『각하내외분을 뵙고싶다는 오래된 소망이 이루어져 기쁘며 특히 內子까지 초청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며『각하께서 베풀어주신 환대와 환영에 감격하고 있으며 이것은 본인에게보다는 日本국민에게 베풀어주신것으로 생각해서 더욱감사하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이『오늘날씨가 추위 공항환영행사에 고생을안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묻자 나까소네수상은『매우성대한 환영을받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고 거듭 謝禮를표명.

양국수뇌는 환담이 끝난뒤 大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훈장과 선물등을 교환했는데 全대통령은 나까소네수상에게 수교훈장光化大章을 직접 달아주었다.

이어 全대통령내외는 나까소네수상 내외에게 동양화1쪽, 은제칠보세트를, 나까소네수상 내외는 全대통령내외에게 백자항아리1점과 진주목걸이를 각각 선물.

이날 훈장수여식에서 나까소네수상은 全대통령에게 훈장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까소네수상이 日本의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

청와대 만찬

○…全대통령내외가 11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나까소네 일본수상내외를 위해 베푼 공식 만찬은 약 2시간동안 정중하고 和氣에찬 분위기속에서 진행.

全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하오7시 정각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영빈관 현관에 도착, 國旗兵을 앞세우고 1층리셉션장에 들어서 리시빙·라인에 올랐다.

全대통령을 중심으로 바른쪽에 나까소네수상, 쓰다꼬(蔦子)여사, 염부인 李順子여사順으로리시빙·라인에 선 양국官員내외는 약15분간 일본측수행원과 3府요인, 駐韓외교사절들의 順으로 만찬에 참석할 인사들을 접견.

접견이 끝난뒤 양국수뇌는 잠시 휴식을 가진뒤 하오7시25분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영빈관 2층의 만찬장에 입장, 헤드·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양국 국가가 연주됐고, 국가연주가 끝나자 양국수뇌들은 자리에 앉아 洋食으로 차려진 만찬을시작.

만찬이 시작돼 10여분쯤지날무렵 全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미리준비된 만찬사를 낭독했고, 이어 나까소네수상도 통역없이 答辭를 낭독.

全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각하의 이번 訪韓은 韓日양국관계사에 있어서 문자그대로 紀念碑的인 일인 동시에 그 역사적인 의의는 실로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한다』면서 『千里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인용, 이번 訪韓이 양국관계의 새로운里程標가 될것임을 강조한뒤 축배를 제의.

나까소네수상도 답사를 통해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시 축배를 제의했다.

이날 만찬장인 영빈관정문에는 양국국기가 게양됐고, 청사초롱이 수놓아져 韓日관계에 새로운 章이 열리는 역사적 순간을 보는듯 했다.

이날 만찬에는 일본측에서 공식수행원등 24명, 한국측에서 3府요인 정당대표, 3軍참모총장 각계대표와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4개국대사를 비롯한 駐韓외교사절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空港

○…日本수상으로서 첫 公式訪韓하는 나까소네 수상을 맞은 서울, 金浦공항의 날씨는 차가왔다. 하오 3~4시의 서울 기온은 영하 4도1분.

그러나 맞는이와 찾는이들은 이 추위를 鄭重한 영접, 따뜻한 親善으로 녹였다.

金浦공항 환영식의 20분은 차가운 바람속에서도 太極·日章旗가 함께 어울려 질서있게 차분하게 진행됐다.

나까소네 수상을 환영하는 커다란 현수막아래 두나라국기는 나부꼈고 식장엔 6백여명의 德園여고합창단이 1백여 서울日本인학교학생들과 마주보며 단정히 자리잡는 한편 禮砲隊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됐다.

해방후 처음으로 중앙청옥상에 게양된 日章旗를보며시민들이 여러가지 視覺을가지고대했듯이 환영식장에서도 日本수상을 맞는 환영인사들의가슴에는 착잡한 마음이오가는듯 숙연한표정들이었다.

환영식에는 정부측에서 金相浹국무총리를 비롯, 金俊成부총리, 李範錫외무, 盧泰愚내무등 국무위원들과 입법부에서 蔡汶植, 金殷夏국회부의장, 李鍾贊民正, 林鍾基民韓, 李東鎭국민등 3黨총무, 李載濚 韓日의원연맹회장등이, 사법부에서 李一珪대법원수석판사, 金容喆법원행정처장등 3府요인들이 出迎.

두툼한 겨울코트차림의 출영인사들은 대부분 부인과함께 나왔고 외교관은 카르노바駐韓외교단장겸駐韓브라질대사와 美國대사대리와 캐나다등 太平洋지역국가대사들이 참석했으며 60여在韓일본인들도 太極旗와日章旗를 들고 出迎.

하오3시40분 나까소네수상일행이 탑승한 JAL특별기가 공항활주로에 모습을나타내자 환영식사회자는 나까소네수상의 도착을 알렸고 이어 日本말로 통역됐다.

3시45분 조종석에 韓·日양국국기를 꽂은 특별기(JA8053)가 환영식장에 도착하자 합창단은 우리민요를 불러 수상一行을 환영했다.

이어 盧永璨외무부의전장과 마에다駐韓日本대사가 특별기에 올라 나까소네수상내외를 機上迎接.

나까소네수상은 부인 쓰다꼬(蔦子)여사, 공식수행원들과 함께 천천히 트랩을 내려와 트랩아래서 기다리고있던 金총리와 따뜻한 악수로 인사를 교환.

나까소네수상은 金총리에게,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외상, 다께시다(竹下登)대장상등 공식수행원들을 소개한다음 堵列兵사이를지나 李敏濚民正黨대표, 蔡汶植국회부의장, 李대법원수석판사, 金俊成부총리, 李외무, 朴 총무처장관과 카르노바駐韓외교단장, 崔慶祿駐日대사등으로부터 인사를받고 악수를 했다.

沿道

○…영하의 거리를 스쳐가는나까소네 수상一行의 모터게이트에 날씨탓인지 시민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통상 友邦國元首나 수뇌가 訪韓했을때 沿道를 메웠던 人波나 열렬한 환영은 볼수없었다.

하오4시17분께 차량대열이 汝矣島광장을통과하자 2백여 시민들이 조용히 지켜봤다. 호기심을 보였던 인파는 광장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왔던 청소년들. 잠깐 지치기를 그치고 신기한듯 쳐다봤다.

번화가인 光化門, 鍾路의시민들표정도 날씨만큼이나 쌀쌀. 거리는 한산했고 도로양편에는 정·사복경관들 경비가 삼엄.

수상일행은 하오 4시32분 新羅호텔에 金총리와함께 도착, 여장을 풀었다.

중앙청주변

○…나까소네(中曾根) 일본수상의訪韓이 발표된 지난5일부터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던 외무부는 나까소네수상의 訪韓당일인 11일 가장 바빴던 2개부서인 의전실과 亞洲局이 상반된 표정을 보여異彩.

中央廳 屋上 太極旗와 日章旗 나란히

◇中央廳 옥상위에서 太極旗와 日章旗가 나란히 나부끼고 있다. 解放 37년 4개월만에 처음 있는일—. 1945년 9월 9일 이땅에 대한 日帝의 强壓통치와 「桎梏의상징」 으로 君臨하다가패전으로 강제下降당했던 日章旗가 나까소네日本수상이 訪韓하던날 「互惠의상징」 으로 게양된 것이다. 한대세가 흘렀건만 나부끼는 日章旗를 바라보는 시민의 心懷는 착잡하기만 하다. 한세대의 아픔이 너무 큰 탓일까?

◇儀仗隊사열 日本수상으로는 우리나라를 처음 공식 방문한 나까소네 수상㊨이 11일하오 金浦공항에서 金相浹국무총리의 영접을 받은후 金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며 出迎인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出發앞서 閣議주재

—나까소네訪韓하던날… 東京의표정

零下2도의 추위

○…일본수상이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하는 11일, 東京은 맑게 개인했지만 영하2도의 쌀쌀한날씨를 보였다. 東京의 겨울철 최저기온이 평균 영하5도임을 감안할때 영하2도는 매우 추운날씨다.

때마침 서울역시 영하10도를 밑도는 추운날씨여서 東京 서울 모두가 꽁꽁 얼어붙은 날씨속에 韓日간 첫 공식수뇌회담을 지켜보게 됐다.

午餐후 공항直行

○…나까소네수상은 訪韓당일인 11일에도 閣議를 주재하고 경제단체장들 접견하는등 바쁜 오전일과를 보낸뒤 농민단체대표및 자민당 농민관계당원들과 오찬을 나눈뒤 곧바로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직행, 하오1시30분 일본항공 특별기편에 올랐다.

東京시내에서 하네다공항에 이르는 沿道주변에서 특별한 환영무드는 찾아볼수없었고 국영 NHK방송만이 정오와 하오1시및 3시뉴스에서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사실을 짧막하게보도했다.

日 언론들 대대적 報道

空港까지 특별한 환송무드 안보여

인터뷰 衛星중계

○…일본 언론들은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의 訪韓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영 NHK·TV방송은 지난10일밤 9시 뉴스프로중 한국일보 曺淳煥 논설위원과의 연 … 의 날씨는 매우 춥지만한국국민들은 나까소네 수상의 訪韓을 환영하고 있다. 나까소네의 訪韓이 교과서歪曲문제등으로 상처받은 한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前向的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국민은 편협한 국민이 결코 아니다』라고 曺위원과의 대담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NHK방송은 15분이상 방영된 曺위원과의 인터뷰가 NHK사상 처음으로한국언론인과의 인터뷰를 인공위성을통해 중계하고 있음을 이례적으로밝혀 특별한관심을보이기도 했다.

曺위원은 이인터뷰에서 『일본의경제협력은 한국의 방위력증강의 일차목표는 한국을방위하는데 있으며 이로인해 한국은 일본및 동북아의 안정과방위에 기여하고있다』고 지적한뒤『韓美간 美日간 군사협력강화로 韓美日 세나라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이나 소련의위협등에 맞설수있을 …

… 로써 양국간 상호신뢰를두텁게 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韓日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한국방문이 수상취임후 첫외유란점에서 유익하길 바라며『성심껏 한일수뇌회담에 임하겠다』고 말하고『경제협력문제등 현안문제는 상호이해와 우정을 갖고서 협의하면타결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崔대사와 要談도

○…崔慶祿 주일대사는 나까소네수상 訪韓전날인 10일상오 수상관저로 나까소네수상을 예방하고 요담했다.

崔대사는『수상이 취임한뒤 처나들이로 한국을택한 결단을 높이평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대해 나까소네수상은『이번 訪韓을 계기로 韓日간의 새로운 관계개선을위해 최선을 다할생각』이라고대답했다.

나까소네 수상은 또『韓日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기위해 全斗煥대통령과 東아시아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대국적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韓民統등 示威도

○…韓民統등 反韓단체소속 50여명의 재일동포들은 11일상오 10시 일본외무성앞에서『나까소네 訪韓반대』『韓日간 40억달러 경제협력반대』『韓美日三角군사동맹강화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일본경찰의 제지로 해산하기도 했다.

특별기搭乘 제한

○…나까소네 수상 일행이 한국방문을 위해 탈 일본항공(JAL)특별전세기 DC8 「1969 특별기」는 94인승으로 공식, 비공식 수행원과 총리실담당기자들만으로도 좌석이 부족해 각언론사 1명만에게 특별기 동승의 혜택이 돌아갔다.

당초 59명의 일본기자가 특별기 동승을 신청했으나 자리가 모자라 일본기자 30명과 외신기자 6명은 일반비행기편으로 수상일행에 앞서 한국으로 출발했다.

한편 한국의 駐日특파원들도 특별기동승을 신청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고, 일본에서 관례로 되어있는 수상방문국 특파원團과의 인터뷰도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메아리

旗

어떤 네덜란드人이 한 미국인에게 자기나라 국기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기는 우리가 내는 세금의 상징이다. 우리가 세금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세금 고지서를 받을때는 하얘지고 세금을 내고나면 파래진단』

이 말을 듣고난 미국인은 고개를 끄덕이며『당신 말 뜻을 알겠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게다가 눈에 별이 번쩍번쩍 튀기까지 한다』고 대답했다.

세금을 비꼬는 유머이기는 하지만 국기는 이렇게 한나라의 모든것을 상징한다. 象徵性이 강하므로 국민들은 때때로 국기에 과민해지고 흥분하게 마련이다.

旗는 靑馬의 詩句대로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휘날리는 국기를 보고있으면 그나라 국민의 喊聲이 들린다. 旗에는 노래가 있다. 국기는 그나라 국민의 合唱으로 나부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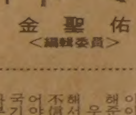
우드로·윌슨 전미국대통령은『우리가 받드는 국기는 우리의 단결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사상과 한국가로서의 우리의 목적을 상징하는 것이다. 국기는 비록 말이 없지만 우리의 과거를, 우리앞에 지나간 사람들이 그 위에 적은 기록을 말해준다. 국기는 감정의 具現이 아니라 역사의 具現이다』라고 연설한적이 있다.

국기에는 이렇게 한나라의 역사가 담겼다. 국기를 바라본것은 역사를 읽는 일이다.

중앙청에 해방후 처음으로 日章旗가 걸렸다.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의 訪韓을맞아 국빈 예우를 한것이지만 그 중앙청이 옛 總督府이고보면 느낌이 유다르다. 世宗路의 길가에 太極旗와 日章旗가 나란히 나부끼는것도 못보던광경이다. 그동안 일본수상이 몇차례 서울에 오기는 했지만 모두 慶祝아니면 弔問을 위한것이어서 공식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빈에대한 예의를 다 갖추면서도 日章旗에대한 우리의 국민감정을 조심하는 눈치다.

日章旗가 정확히 언제부터 日本에서 쓰였는지는 저들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스스로「해뜨는나라」라고 자칭한 민족이라 오래전부터 빨간색圓에 특별한 감정을 가졌던것 같다. 기록상으로는 서기701년 元旦에 天皇의 賀禮儀式때 쓰인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때는 지금처럼 가로로 긴 것이 아니라 세로로 기다란 白色천에 그린 것이었다. 日章旗는 明治정부때인 1870년 모든 일본 商船에 게양하도록 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국기가 되었다.

이 日章旗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난것은 壬辰倭亂때였다. 이때 豊臣秀吉의 배에 日章旗가 걸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金聖佑 <編輯委員>

피로 물들지않은 국기는 없다는 말이 있다. 솔직이 말해 우리는 그 핏빛 日章旗를 볼때마다 침략의 짓발이라는 인상을 아직도 씻지 못한다. 마치 네덜란드人이 국기를 보고 세금을 연상할때처럼 더러는 분해서 빨개지고 놀라서 하얘지고 억울해서 새파래지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日章旗는 적어도 우리마음을 日出의 아침처럼 고요하게는 해주지 못해왔다. 이웃나라국기가 어쩐지 서먹한것은 중앙청앞에 나타난것이 눈익지 않은탓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무언가 편치않은 사이이기때문이다. 旗는 症狀을 진단해준다.

우리는 知日을 한뒤 克日을 한해서 어서 日章旗의 피해의식 내지 不信意識을 씻고 日章旗에 免疫되어야할 것이다. 日章旗가 여느나라 국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 나부낄수 있어야 한다.

日本은 日章旗가 우리에게 信賴의 깃발이 되고 友誼의 깃발이 되고 安心의 깃발이 되자면, 그 깃발이 떤 歷史의 顏色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진심으로 自愧하고 自重하는「過去反省」의 빛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해방후 처음으로 옛 총독부건물에 日章旗를 걸어준 의미다.

영남향우회 창립파티

계해년을 맞이하여 귀하의 가정과 모든일에 신의 축복이 임하시옵기를 빕니다.

멀리 떠나온 고향길에 그리움! 생각하는 나그네들로 뜻을 모아 처음 마련한 회포의 자리를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하루를 빛내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1월29일(토) 오후6시
장 소 : KENNEDY BANQUET HALL
991 Kennedy Rd.(Kennedy & Lawrence 동남쪽)
자 격 : 남녀노소회원에 한함. 회 비 : 1인당 $25
진 행 : 6시~6시30분 Cocktail(칵테일)
6시30분~7시 총회
7시~8시 Dinner(디너)
8시~1시AM 각종여흥(Door Price, Bingo 초청가수및 밴드, 댄스, 기념품증정)

연락처 :
정상우 743-8220 김영대 (705) 689-2272 배기덕 423-9899
심성택 741-7907 심재환 743-5830 김만구 486-0397
안수용 745-1322 김현모 251-6578 박학수 751-3206
배경락 755-7635 김진수 638-3447 신중화 921-4466
서형석 261-2197 정해봉 465-9992 박태조 499-3721
박시환 654-3358 김점환 439-3044 서명식 249-6830

영남향우회 창립위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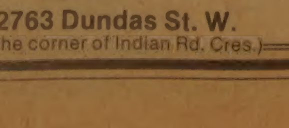
동양식 디자인의 수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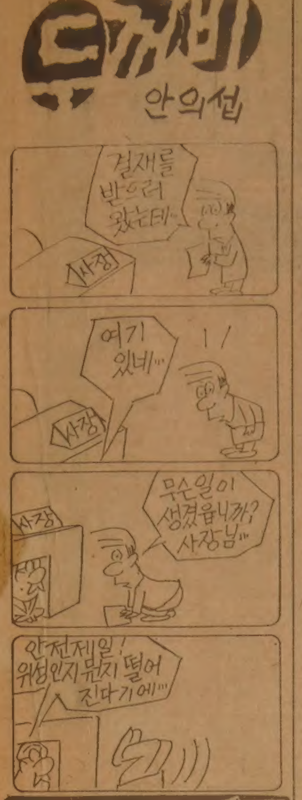
다양한 색갈과 품질 Rugs·담요·카펱 직사각형 둥근형 8각형

Sarouk

Kirman

Chinese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치열한 눈치作戰… 接受저조

서울大 3천3백·延大 2천5백명

원서접수마감을 하루앞둔 11일 그동안 한산했던 전기대학접수창구에는 지원자들이 붐벼 활기를 띠기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수험생들이 눈치작전을 펴느라 실제접수인원은 예년에비해 저조했다.

한편 각대학들은 미달사태를 우려, 이날부터 매일2회씩 접수 현황을공개하고 일부대학에선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학과의전망을 수험생들에게 설명하는등 때늦은 홍보전을 펴기도 했다.

이날 현재모집인원을 넘어선 대학은 國民大뿐이다.

서울大는 이날상오부터 지원자들이 몰려 모집인원 6천5백26명에 3천4백18명이 지원 (52%) 했으나 지난해에비해서는 크게저조했다. 하오5시현재 미술대(모집인원 1백82명) 와 음대 (〃 2백47명) 는 각각 2백76명, 2백70명이 지원, 모집인원을 넘었고 法大는 3백64명모집에 3백10명이 지원, 비교적 지원률이 높았다.

특히 이날부터 지방학교의 단체접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大에 1백72명의 최다 합격자를 냈던 晋州高와 2명의 합격자를 냈던 東明高등이 각각 62, 72명분의 원서를 단체 접수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지역 수험생들은 대개 개별 접수하는 모습이었다.

延世大는 이날하오부터 고교별 단체접수와 개인지원자가 몰려 하오5시현재 모집인원 5천5백90명에 2천4백90명이 지원, 정원의 반을 넘지 못했다.

세칭인기학과인 상경대학과 의과대학등에는 절반가량의 지원자가 접수를 마쳤는데 이날로 音大기악과·교회음악과등이 정원을 약간 넘어섰다.

高大 접수창구는 1천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려 발디딜틈도 없이 붐볐으나 수험생대부분은 지원학과를 기재하지않은 원서를 든채 접수상황을 살피고 서로 정보교환만 할뿐 원서접수를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모집인원5천6백81명에 2천1백7명이 지원한 高大는 정외과가 모집인원 88명에 77명이지원, 비교적 높은 지원률을 나타냈다.

成均館大는 이날하오3시현재 1천1백91명이 원서를 접수시켰으나 모집인원 4천2백77명의 4분의1선에 그쳤다.

梨大도 하오5시현재 모집인원 4천4백72명에 1천4백53명이 지원, 3분의1에 못미치는 저조한 지원률을 보였다.

梨大의 경우 52개 과·계열가운데 미대서양화과가 모집인원 78명에 1백2명이 지원, 조소과 섬유예술과 장식미술과등 4개과가 정원을 약간넘어 섰다.

淑大는 1천7백16명 모집인원에 6백8명이 지원했는데 미대산업미술과가 39명모집인원에 40명이 지원, 모집인원을 약간 넘어섰다.

西江大는 1천7백68명 모집인원에 4백92명이 지원했다. 外大는 하오5시현재 3천5백10명모집에 1천1백12명이접수, 3분의1에도 못미쳤다.

◇서울大접수현황

대학	모집인원	지원
인문대	676	265
사회대	735	359
자연대	962	577
공대	1,033	406
법대	364	310
경영대	325	260
가정대	195	19
사범대	702	344
농대	819	197
약대	104	21
간호·과	104	48
미대	182	276
음대	247	270
수의대	78	24
계	6,526	3,376

◇서울소재 前期大접수

대학	모집인원	지원
가톨릭大	208	185
建國大	3,523	1,747
慶熙大	4,550	2,348
高麗大	5,681	2,107
國民大	1,989	2,224
檀國大	4,537	2,120
東國大	4,251	1,545
西江大	1,768	492
成均館大	4,277	1,191
誠信女大	1,521	876
世宗大	1,287	845
淑明女大	1,716	608
崇田大	1,924	1,512
延世大	5,590	2,490
梨花女大	4,472	1,453
中央大	4,810	1,276
韓國外大	3,510	1,112
漢陽大	6,162	1,961
弘益大	2,327	1,821

가나다順　하오5시현재

"接受마감시간嚴守"

문교부지시 窓口혼잡 대비책 세우도록

문교부는 11일 전기대지원자들이 원서 마감일인 12일하오 한꺼번에 몰려 접수창구가 큰 혼잡을빚을것에 대비、각대학실정에따라 효과적인 대책을세우라고 긴급시달했다。

문교부가 각대학에 유의사항형식으로 시달한 내용은▲12일 하오6시로된 원서접수마감시간을 철저히 지킬것과▲접수마감시간에빚어질창구혼잡을 완화키위해 접수창구를 최대한 늘릴것▲마감시간이전 도착한수험생에한해 접수를 허용키위해 적절한통제조치를 마련할것 등이다。

◇李順子여사·쓰다끄여사환담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1일하오5시20분께 청와대에서 제1차韓·日頂上회담이 열리는 동안 나까소네 日本수상부인 쓰다끄여사(蔦子)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入學査定원칙 확정 全北大

【全州】 全北大는 11일 83학년도 입학생선발사정원칙을 발표했다.

이원칙에 따르면 제1지망자중에서 졸업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모집인원의 나머지는 제1지망자중 불합격자와 제2지망자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하기로했다. 【聯】

朴順天여사 장례식 社會葬으로 결정

정부는 11일 故朴順天여사의 장례식을 社會葬으로 결정하고 朴여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章(1등급)을 追叙하고 朴여사의 社會葬에 따른 장례비일부를 예비비에서 보조키로했다.

정부는 또 故李璋根박사의 遺骸를 국립묘지에 安葬토록했으며 李박사의 가족장장례식비 일부도 보조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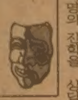
消防官 정년단축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이 금년부터 단축됐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방공무원법은 소방정감은 7년에서 4년으로, 소방감은 8년에서 6년으로, 소방령은 14년에서 12년, 소방경은 16년에서 14년으로 각각 계급정년을 단축했다.

알아서 하라

正一학원 進學지도실장 鄭基成씨



"15년만에 처음겪는 답답함"

고득점자 사태가 난 금년도 대학입시는 학력고사성적외에도 내신등급, 눈치 배짱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그만큼 각고등학교나 대입학원의 진학지도도 어려워졌다. 正一학원 진학지도실장 鄭基成씨 (51·사진) 도 요즘 답답함을 이기지못해 배치기준표를 들고 찾아오는 수험생들과 입씨름하느라 하루 해가 짧다.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금년도 진학지도가 어렵다는 푸념이다.

69년 1월부터 진학지도를 해왔지만 금년같은 해는 처음이다. 14년동안 2만여명의 진학을 상담해 온동안 다른 해에는 그런대로 진학지도기준을 마련, 높은 적중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기준을 설정하기조차 어려워 답답함을 느낀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찾아오는 수험생에게 할수있는 답은 『알아서 하라』는 것뿐이라는데 고민이있다.

수험생들에게 진학지도를 하는동안 鄭씨는 금년도 대입학력고사는 입학고사의 성격을 벗어나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전락한 느낌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대학별로 시험을 볼때는 대학교마다 그나름대로 특성이 있어 진학지도가 필수적이었으나 금년같은 상황에선 진학지도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풀이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수험생들의 진학태도는 항상 진지하다는 것이 鄭씨의 경험。이때문에 금년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학생과 5분에서 30분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충고도하고 설득도한다。

대부분 이야기를 잘듣지만 20%는 떼를 쓴다。그러면 학생의 성적과 적성、능력과 본인의 희망등을 물은뒤 『다른 대학에도 훌륭한 교수가많다』고 조목조목 설명하며 달랜다。

鄭씨도 올해 막내아들이 대입학력고사를치러 마음을 죄었다。다행히 3백점에 내신 1등급이라 가고싶은 대학에진학하라고했지만, 만일 아들의 성적이 나빴더라면 어떻게 진학지도를 해야했을까 생각만해도 암담하다。

『적성을 파악, 공부해 보겠다는 과목을 택한후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진학의 바른 길입니다。눈치작전으로 대학에 들어간들 얻는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의 진학지도방침은 원서마감일인 오늘 많은 수험생들에게 참고가되면 하는 마음이다. 【韓基奉 기자】

"人氣人 이웃은 괴롭다"

10代극성팬들 떼지어몰려와 북새통

面談요구 徹夜하며 노래합창

住民 잠설치고 子女교육지장

◇趙容弼씨 아파트앞　10대소녀가 대부분인 극성팬들이 인기가수의 아파트앞에서 장사진을 치며 며칠씩 철야, 북새를떠는 바람에 이웃주민들이 큰불편을 겪고있다。가수 趙容弼씨의 아파트앞。

젊은 인기연예인들 「10代의 우상」이니 뭐니 하는 세태라고 하지만 10代 극성팬의 횡포가 이해해줄수있는 한계를 넘고있다. 이들에게 시달리는 연예인이나 그가족들은 「인기」때문에 어쩔수없는 모양이지만 연예인의 집이나 아파트근처의 주민들은 밤새 벌어지는 북새통과 소란때문에 잠을 이룰수없고 가정교육상 악영향을 받고있다고 호소한다. 공개홀이나 TV녹화장에나와 괴성을지르거나 라이벌 연예인의 팬들과 싸우는 것은 이제 예사이고 요즘은 연예인집에 떼지어 몰려들어「면담」을 요구하며 며칠씩 계속해서 밤을새우는게유행.

이들이 밤을 새우며 면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눈을 한번 마주치기위해」「손을한번 잡아보기위해」「집안에 한번들어가보기위해」「사인을 얻기위해」「이름을 한번 불러주도록」등 어처구니없는 것들이다.

82년도 모방송국의 「가수왕」으로 뽑힌 인기가수 趙容弼씨(33)의 거주지인 서울江南區西瑞洞 모아파트 X棟입구에는 지난연말께부터 趙씨의팬을 자처하는 14~16세의 여중생들이 하루 60~70명씩 몰려들어 외출에서 趙씨가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있는데 이들중 일부는 매일같이 「면담」의 행운을 기다리며 밤을 새우기도한다.

이들중에는 멀리 부산, 대구등지에서부터 「서울친척집에 다녀오겠다」고 부모를속이고 상경한 소녀들도 있다.

趙씨의 TV공개쇼 프로그램이있는날은 밤을새우는 극성팬들은 10명이상으로 늘어나 자정이넘도록 집주위에서 서성거린다.

집주위에모인 이들은 서로 모르는사이며 「경쟁자」지만 그즉시 친숙해져 趙씨에대한 「정보」를교환하는 팬클럽을 형성한다.

지난해12월중순께 釜山에서가출, 5일간이나 趙씨집문전에서 밤을새우던 權모양(15·釜山S여중3년)은 수소문끝에 찾아온 가족들에게 이끌려 귀향하기도했다.

이들은 천신만고끝에 趙씨를 만나면 악수를 한번 하거나 이름을 불러주거나 눈길을 한번 마주치는 것으로 「까무라칠듯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라야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 고작이다.

극성소녀팬들은 趙씨의 신상명세서 정도는 물론외며 차번호, 좋아하는담배, 군것질종류의 알기는물론, 趙씨의 노래제목으로지은 「시」를 암송하기도하며 면담이 이루어질때까지 무작정기다린다.

이들은 趙씨를 기다리면서 아파트뒤쪽으로 몰려가 노래를 부르기도하는데 趙씨의 그라나다승용차 (서울4다8015) 가 아파트입구에 들어서기만하면 우르르 몰려가 『오빠』라고 외치며 야단법석이다. 이때문에 趙씨는 지난신정연휴에는 친구집에 피신가기도했으며 아예 전화수화기를 내려놓고지낸다는것.

大邱에서상경, 1주일째밤을새우며면담을기다린다는 鄭모양 (14·大邱H여중2년)은 『집안에서 면담이 이루어질때까지 고향에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가족들에게는 서울이모집에간다고 속였다』고 말했다.

경기富川市에서 상경하여 자정이넘어 귀가하지못한다는 金모양 (15·경기富川B여중3년)은 『벌써7시간이나 기다렸다』며 경비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趙씨의 아파트주변에는 극성팬들을 대상으로 생겨난뒤 김밥등 포장마차까지 등장, 지난여름 한참몰릴때는 8대까지 되기도했다.

이들은 趙씨가 밤이늦도록 귀가하지않으면 인근 독서실이나 교회문앞에서 새우잠을 자고 새벽이면 또다시 문전으로 몰려든다.

또趙씨가 출타중이면 가족들에게 집구경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간신이 집구경이 허용되면 돌아갈때는 넥타이·손수건·액세서리는 물론 무대의상까지도 몰래갖고 가기도 한다는것.

지난 81년 12월15일 趙씨가 이곳으로 이사올때부터 아파트경비를 맡아왔던 경비원 金仁燦씨 (35)는 『소녀 팬들의 극성때문에 용변을보러 자리를 뜰수도없다』고 말하며 『특히 밤을새우는 소녀팬들을 집에 돌려보내기에 이젠 지칠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극성팬들의 소란때문에 이웃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경비원의 눈을속여 옥상에올라가 쿵쿵대며 노래를부르기도 하고 아파트뒤쪽에몰려가 소란을 피우는바람에 잠을설치기도 한다는것.

또 지난여름에는 이아파트 앞 잔디밭에서 극성팬남녀가 어울려 잠들자기도해 자녀들의 교육에도 지장이 많다는 것.

이 아파트주민 李모씨(41·여)는 극성팬들의 소란에 『잠을 설칠지경』이라고 말하며 『가족들이 무엇하기에 찾지도 않는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고 金모군(21·A대2년)은 『복도를 타고 올라오는 소음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할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K식품점주인 朴相九씨(41)는 『주위에 떨면서 밤을 새우는것을보면 불쌍하게 느껴 가게에서 재워주기도했다』고 말하며 『도대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같은 극성일까』라고 개탄하기도했다.

趙씨도 『가능하면 모두에게 면담을 해주고자하지만 새벽2~3시께까지 기다리는 극성팬들때문에 편히 쉴수가 없다』고 말하며 『차비까지 주면서 돌려보내기도하지만 계속찾아와 소란을 피운다』고 비명을 질렀다.

趙씨뿐아니라 인기가수 李모씨·송모씨 집앞에도 이같은 10대팬의 북새통이 벌어지고있는데 지난연말 모방송국 시상식에서는 팬들끼리 다투는 소란을 빚기도했었다.

이에대해 延世大 李相回교수는 『핵가족사회에서 사춘기여학생들이 쉽게접할수있는 인기연예인과 자신을동일시하려는 현상때문에 이같은 경우가생겼다』고 말하며 『건전한 이성교제를 형성시켜주거나 몰두할수있는 다른대상을 마련해주는등 부모들의가정교육을 통해 해결되어야되는 사회적병리현상』이라고 풀이했다. 【朴榮基기자】

美, 새 入出國기록제 실시

여행자狀況 철저管理키로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미국이민국은 미국내에 일시체류 또는 여행하는 비이민입국자들의 입출국상황을 좀더 철저히 관리하기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비이민의 입출입국기록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새로운 이제도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이민외국인입국자, 즉 유학생 관광객 문화및 여행자등은 새로 마련된 1-94서식에 인적사항및 입국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해야하며 이중 한부분은 입국자의 여권에 부착, 출국시 떼어 내도록 되어있고 다른 한부분은 각 공항에서 이민국의 컴퓨터에 수록토록되어있다.

이민국은 미국공항가운데 가장입출국이 빈번한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공항에서는 이 기록수록을 1일기준으로하고 예정이며 다른공항에서는 1주일기준으로수록, 출국시에도같은 방식으로한다고밝혔다.

이민국은 이제도의 실시로 어느나라의 누가 얼마동안 체류했으며 또는 비자기간내에 출국하지못하고있는가를 수시로 파악할수있음은물론 국적별 외국인상황도 그때그때 알수있게되었다고 말했다.

大學진학못해悲觀한 두女高生

自殺기도、1명숨져

【木浦】 11일상오10시께 전남목포 산정동 광성여관5호실에서 전북裡里市 모여고3년 박숙현양 (19) 과 이정란양 (19) 등 2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기도, 박양은 숨지고 이양은 목포적십자병원에 입원가료중이나 중태다.

이들을 발견한 여관주인 晋治光씨 (61) 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밤11시께 보따리를 들고와 이방에 투숙했는데 이날상오10시가 되도록 사람소리가 나지않아 노크했으나 응답이없고 문이 잠겨있는것을 이상히여기고 문을부수고 들어가보니 박양은 숨지고 이양은 신음하고있었다는것. 【聯】

五松會사건 피고인 9명起訴 3명猶豫

【全州】 全州지검 安大贊(부장검사)는 11일 群山모고교교사를 주축으로한 五松會사건관련피고인 12명중 李光雄(42)피고인등 9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高完坤(36)피고인등 3명을 기소유예처분했다. 【聯】

事件참고인出席요구제 개선

편리한날 정해 나올수 있게

치안본부는 11일 사건참고인의 출석요구를 개선, 관계자가 지정된 일시에 경찰관서에 나오지못할경우에는 편리한 날을 정해 나올수 있도록하고 출석요구서의 명칭도 출석통지서로 바꾸기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출석요구제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만을 해온것이어서 이번에 시정키로한것인데 통지서도 종래의 엽서를 피의자및 피고소인은 흰색, 참고인은 엷은 하늘색으로 구분, 봉함엽서를사용토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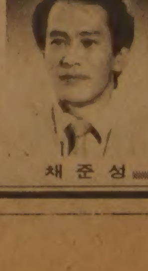
경찰은 또 참고인의여비를 종전의 1회 8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인상했다.

前농수산장관 李載卨씨

李載卨전農水産部장관이 10일하오8시30분서울대병원에서별세했다。향년 51세。유족으로는 부인 金永殷여사와 1남1녀가 있다。발인은 14일 상오9시 서울대병원。장지는 南楊州郡 선영。☎서울7601~34 99서울대병원 ☎5544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ㅁ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ㅁ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ㅁ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 960－1765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8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부동산및사업체
매매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첫날 大會新 4개로 주춤

羅潤洙·李永河·裵基兌등 力走보람없이

회장旗쟁탈 氷上대회 개마

회장기쟁탈 제13회 전국남녀빙상대회가 11일 泰陵스케이트장에서 개막, 첫날 스프린트대회우승자인 羅潤洙(단국대)가 남대3천m 대회신기록을 내는등 모두 4개의 대회신기록이 작성됐다.

그러나 한국신기록은 1개도 나오지않았다.

영하11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로 기록은 전반적으로 저조한편.

한국신기록을 기대했던 3천m 최고기록 보유자 羅潤洙는 이날 남대 3천m에서 역주했으나 자신이 82년 2월에세운 한국최고기록 4분21초25에 훨씬 못미치는 4분26초31로 대회신기록에 그쳤다.

남자일반 3천m와 1천m에 출전한 노장李永河(대우)는 3천m서 羅潤洙보다 0.68초 떨어진 4분26초99를 마크하고 남자일반부 1위로 대회신기록(종전 4분36초07)을 세웠으며 1천m에서는 1분22초07로 저조했다.

한편 올해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된 裵基兌(서울고)도 남고5백m서 41초46으로 78년 孫世源이세운 41초76을 0.3초경신,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으며 여자일반5백m서 李聖愛(외환은)가 45초44로 대회신기록을 추가했다.

◇첫날기록(대회신)

▲남대 3천m=①羅潤洙(단국대) 4분26초31(종전 4분35초35) ▲동남자 일반=①李永河(대우) 4분26초99(종전4분36초07) ▲남고5백m=①裵基兌(서울고) 41초46(종전41초76) ▲동여일반=①李聖愛(외환은) 45초44(종전46초56)

冬季體典 선수대표 氷上의 羅潤洙선수

대한체육회는 오는24일 개막되는 제64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선수대표로 빙상의 羅潤洙(단국대)를 선정했다.

강추위에 꽁꽁언 한국新

老將도 "샛별"도 침묵

◇死力을 다해… 남자스피드 스케이팅의 유망주 羅潤洙가 남대 3천m서 역주하고있다. 羅는 4분26초31을기록, 한국최고기록경신에 실패하고 대회신기록에 머물렀다.

高校팀 光星工도 決選에

탁구 종합選手權 安宰亨등 맹활약 新進工 격침

大宇중공업·星武도

82년 탁구 종합패권을 가리는 제36회 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가 11일 文化체육관서 개막되었다. 첫날 남자단체 예선전에서 A조의 大宇중공업, B조의星武, D조의 光星工高가 4강이겨루는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예선 C조서는 第一合纖과三湖가 서울大를 각각 3-0으로 누르고 나란히 1승을 기록, 12일 결선 진출권을 가리게 되었다.

82년시즌 국무총리기, 종별선수권, 학생선수권등 3개대회 남고부 타이틀을 차지했던 光星工高는 이날 예선 D조경기서 고교랭킹1위 安宰亨과 李正勳·薛鍾基등의 활약으로 新進工高를 3-0으로 완파하고 고교팀으로서는 유일하게 결선에 올랐다.

같은D조의 국정교과서는 팀 사정으로 기권했다.

여자단체전 패권을 노리며 실업강호들을 위협하던 理一女高는 이날 예선 D조 1차전서 大韓航空을 3-2로물리쳤으나 2차전서 釜山코카콜라에 3-1로 석패, 1승1패로 처졌다.

국가대표 주전梁英子는 아시안게임 이래 부진을 씻지못해 申得花의 매서운공격에 2-1로 무릎을꿇었으며 마지막 3차단식서 金淑이 朴宋粉에게 2-0으로 앞서다 역전을 허용, 3-1로 패했다.

◇제1일 전적

▲남자단체 예선 A조
대우중공업 3-2 한성대
▲동순위=①대우 1승 ②한성대 1패
▲동B조
성 무 3-1 신흥고
▲동순위=①성무 1승 ②신흥고 1패
▲동C조
삼 호 3-0 서울대
제일합섬 3-0 서울대
▲동D조
광성공 3-0 신진공
▲동순위=①광성공 1승 ②신진공 1패
▲여자단체 예선A조
외 환 은 3-1 근화여고
서울신탁 3-2 호수돈여고
▲동B조
한 일 은 3-0 안양여고
제일모직 3-0 신일여상
▲동C조
산 업 은 3-1 서울여상
동아건설 3-0 명지여고
▲동D조
이일여고 3-2 대한항공
부산코카콜라 3-1 이일여고

회장에 朴泳逸씨 서울시 배구협회

서울시배구협회는 11일 大農그룹 부회장 朴泳逸씨를 회장으로 하는 신집행부 임원진을 확정했다.

서울시협회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을 앞두고 국교및 중학교 배구팀 저변확대를위해 상임이사진에 보급이사제도를 신설했다.

◇신집행부

▲회장=朴泳逸(대농그룹부회장) ▲부회장=金仁洙(한국전력)·金泰泳(대농감사) ▲전무이사=金振熙(후지필름감독) ▲기획=安相浩(일신여상) ▲총무=梁貢澤(한전감독) ▲심판=宋裕珍(서울시청감독) ▲경기=嚴翼泰(경복여상) ▲섭외=宋奇山(배구협회의사) ▲보급=朴英俊(북부교육구청) ▲이사=孫聖教(인창고)·文相浩(성암여상)·李容寬(서강대) ▲감사=張明道(성균관대)·許相泰(추계국교).

張明夫투수(在日동포) 다시 서울에

三美와 "1億원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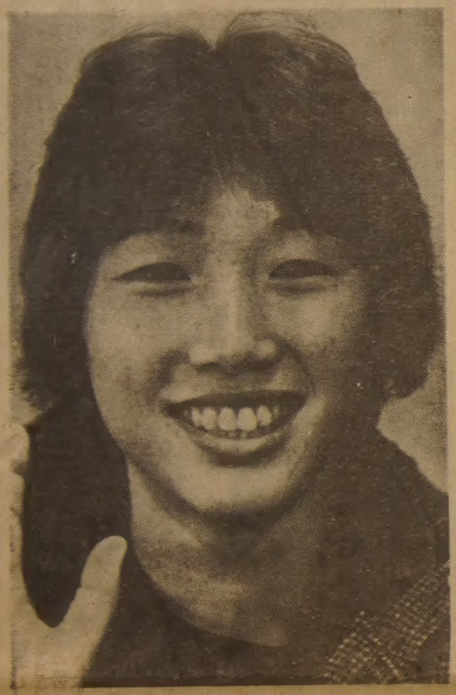
◇張明夫투수

在日同胞 야구선수 張明夫(32·일본이름 福士敬草)가 국내프로야구팀 三美 슈퍼스타즈 입단교섭을위해 11일 낮 12시30분 부인과 히로시마·카르스 소속 在日同胞 야수 기야마(木山英求)와 함께 입국했다.

張明夫는 『지난 10일 히로시마구단과 커미셔너 사무국으로부터 한국팀이적에 관해 최종적인 양해를 얻었다. 三美와는 구체적인 계약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잘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張明夫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로 지난달 29일 三美의 許亨사장과처음 접촉, 입단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1억원정도의 대우를 바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행한 기야마는 롯데와 같은팀에 입단을 희망하고있으나 日本히로시마구단의 양해를 먼저 얻지않으면 안된다.



농구 金和順

"타도 中共" 先鋒將되어…

새풍에 83년을…

「太平洋함대」도 격침 목표 "敗北 응어리 풀겠다"

金和順(21·東邦生命)에게는 작년 12월3일 뉴델리 아시안게임 결승전 中共과의 대전서 당한 패배의 쓰라림이 아직도 진하다. 또한 대통령배(12월) 결승서 太平洋化學의 아성을 꺾지못하고 좌절했던 아픔도 생생하다. 작년은 실의만 되씹은 한해였다. 좌절을 딛기 위해 金和順은 연초부터 휴일도없이 강훈을 하고 있다.

말이 적은 金和順은 가슴속의 응어리를 강훈을 통해 조금씩 풀고있다. 눈앞에 다가왔진 오는15일부터 열리는 종합농구선수권대회. 어느팀이 太平洋함대를 격침시키느냐는 것이 초점인데 金和順은 「타도 太平洋」의 기치를 높이들어 올렸다.

『신장에서 太平洋이 東邦生命보다 우세합니다. 재빠른 기동력으로 太平洋과 대결해 보겠어요』

金和順은 슛, 리바운드, 기동력등에서 나무랄데가 없지만 파감성이 부족하다. 趙勝延감독은 돼지의 해에 돼지처럼 저돌적인 공격을 하라고 호통 친다. 개인기와 신장에서 앞서있는 太平洋을 꺾으려면 저돌적인 투지 뿐이라고 趙감독은 강조한다.

『金和順은포워드로서 외곽 플레이를 하고 중거리슛도 날리는 강점이 있다. 朴贊淑과의 1對1 대결은 신장때문에 어렵지만 金이 갖고있는 잠재능력을 모두 발휘하는것이 太平洋을 꺾는길』이라고 趙감독은 말하고있다.

5년동안이나 흔들리지 않고있는 太平洋의 아성이 과연 金和順에의해 허물어질수 있을까. 太平洋은 금년에 洪惠蘭 洪英順 두 대표선수를 은퇴시켜야한다. 전력상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같은 변화는 종합선수권대회가 끝나는 금년 중반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金은 현재의 대표선수들이 그대로 뛰는 太平洋을 꺾어보겠다고입술을 깨물고 있다.

金和順의 더큰 목표는 中共타도. 한국은 오는 7월 브라질서 열리는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서 中共과 또한차례숙명의 일전을 벌여야 한다. 더우기 브라질세계선수권대회는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출전권이 걸려있어 한층 중요하다. 만일 여기서 출전권을 얻지 못하면 내년5월 쿠바에서 열리는 프레·올림픽에 나가야 한다.

한국여자대표팀은 洪惠蘭, 洪英順의 은퇴, 발군의 슈터 朴贊淑의 결혼등으로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다. 金和順의 짐은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洪惠蘭등 3명의 은퇴선수가 모두 대표팀의주전 가드. 이들의 무더기 은퇴로 대표팀 가드진에는 朴良桂혼자만 남는셈이다.

金和順은 포워드에서 슈팅·가드로의 변신이 성급히 예상되기까지 한다.

『中共에 진것은 陳月芳이라는 장신 때문입니다. 陳때문에 공수의균형을 이룰수가 없었읍니다. 작전은 코치선생님들이 세울테지만 지난번 패배를 거울삼아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한국의 공격 주무기는 중거리슛. 朴贊淑이 빠지면 이 전통의 무기도 위력을 상실한다. 이 약점이 대표팀의 최대고민.

『장신들과의 대결서는 골밑 플레이로 승부를 걸기 힘듭니다. 역시 중거리 슛인데 3명이 은퇴하고 나면 대표팀은역대 대표팀사상 중거리슛이 가장 약하게 될지 모릅니다』며 趙勝延감독은 걱정이 태산같다.

金和順의 슈팅력은 朴贊淑다음으로평가되고있지만 굴곡이 심한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해낼수있도록 자신을 가다듬겠읍니다』

세계선수권대회서 한국의 강적은 브라질, 쿠바, 中共, 헝가리, 체코, 유고, 불가리아등을 꼽을수있다. 소련과 美國은 한국보다 한단계 우위이다. 대진운도 문제이지만 상위입상을 해보겠다는 것이 金和順의 야망. 【[illegible]기자】

◇金和順신상명세

본적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주소	도봉구 미아3동 158의72
생년월일	1962년 4월 12일생
가족관계	金洪福(49·부) 黃淑卿씨(46·모)의 1남2녀중 장녀
학력	東洲女中·女商졸업
소속	東邦生命
신장	1m78
체중	65kg
취미	독서, 음악

海洋大 44-0 東義大

大學미식축구, 漢大도 釜山大꺾어

제3회전국대학아메리칸풋볼 동계선수권대회가 11일釜山구덕경기장에서 개막, 5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첫날 B조경기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漢陽大는 TB羅昌一의 종횡무진한 활약으로釜山大를 14-0으로 물리치고 서전을 장식했으며, C조의海洋大는 지난해8월 창단한신생 東義大를 44-0으로 대파했다.

A조에서 延世大와 釜山産業大는 0-0무승부를 기록했다.

釜山大는 제2쿼터서 선제득점찬스를 놓치는바람에 위축되어 영패했다. 제2쿼터서 10야드 釜山大 FB 黎寬洙가 漢陽大의 전진패스를인터셉트, 40야드 독주끝에 득점지역 12야드까지 나갔으나 필드골을 실패하여 호기를 놓쳤다.

◇첫날전적

▲A조
연세 0-0 부산산업
▲B조
한양대학 14 (8 6 0 0 / 0 0 0 0) 0 부산대학
▲C조
해양대학 44 (14 8 8 14 / 0 0 0 0) 0 동의대학

◇펠레의 愛人…방년19세 수자嬢의 요염

펠레와 결혼설이 나도는 브라질 모델 수자양(19)이 리오데자네이로의 한패션쇼에서 요염한 자태를 과시하고있다. 【리오데자네이로10일AP합동=聯合】

週末이용 20게임 프로蹴球 올事業

프로축구연맹은 11일 유공과 할렐루야 두팀으로운영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오는 3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20회게임으로 프로축구경기를 치르기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3월26일 서울운동장에서 시즌오픈경기를 갖고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며 20게임을 소화시키기로했다. 또 4월에는 제13회 대통령배 국제대회(6월)에 참가할팀을 결정하는 예선전을 벌이며 5월, 8월, 10월에는 3차에 걸쳐 외국의 1급프로3팀을 초청, 팀당 3게임씩 6게임을 치르기로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3>

朴婉緖 作

부드러운 겨울 ④

들은 세패쯤으로 갈라져서 담소를 즐기고 있었다. 여자들은 주로 복서, 에기 지압(指壓) 얘기, 성인병 얘기, 미용식 얘기, 아파트 프리미엄 얘기들을 했고, 남자들도 프리미엄 얘기를 했지만 아파트가 아닌 무슨 회원권 프리미엄인 것 같았고, 한쪽에선 이즈음 갑자기 권력층 주변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동창 아무개에 대해 구구한 억측들을 했고, 다른 한쪽에선 기기묘묘한 술집의 상업스파이 얘기가 여자들의 관심까지 끌기 시작하다가 우리의 기업소설에 나오는 얘기라는 게 밝혀지자 한바탕 웃고서 빈잔을 채워주기 시작했다.

『감박사 내외가 이번에도 또 빠졌군요. 이러다가 얼굴 잊어버리겠네』

목이 짧은 여자가 생급스럽게 놀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거 아직 모르고 계세요?』

호스티스 답게 담소보다는 음식대접에 쉴새없이 신경을 쓰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던 영란이 난처한듯 하면서도 남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야릇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알아요. 그 부인이 지압사하고 놀아난 걸 장안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내가 왜 몰라요』

목 짧은 여자가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니 얼굴간 어디 나오겠어요?』

『잘만 다니던데요. 위자료를 아주 많이 주겠다고해도 막무가내로 헤어질 수는 없다고 애걸하더래요. 워낙 첫이 돈 좋은 사이니까 그럴려 파경은 면하고 언제 그랬더냐싶게 사나보던데』

『자식 생각을 해서 봐줬겠지만, 감박사도 남잔데 께림칙해서 예전처럼이야 되겠어요? 형식상의 부부일뿐이겠지』

『어머머…될 모르시네. 싹 싹 빈게 누군데요? 감박사가 빌었다는 소리에요』

『그럼 위자료 얘기는?』

『그건 부인쪽이구요. 그 집 재산이야 다 부인이 늘린거지 감박사야 뭐 가진게 있나요』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졌다. 그런 파티여서 남의 파경이나 부정의 소식은 마치 음식의 양념처럼 분위기의 맛을 더 더욱 감칠맛있게한다는 것을 수지도 알고 있었다. 얼마전 까지도 그녀 역시 그런 파티의 단골이었다. 호스티스로서는 손님을 고루 즐겁게, 오래기억에 남게하는 능숙한 솜씨로 정평이 나 있었고, 초대받은 손님으로선 우아한 매너와 재치있는 화술과 누구도 흉내낼수없는 뛰어난 옷맵시로 여왕처럼 찬탄과 질시를 한꺼번에 한몸에 모았었다.

이를테면 파티야말로 그녀가 마음껏 자유로울수있는 그녀가 놀던 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우두커니 한편에 소외된채 파티를 구경하고 있었다. 마치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것이 파티는 가깝고도 멀었고 절대로 동화될수 없는 이질감이 차단하고 있었다. 웬까? 후줄근한 옷때문일까? 가꾸지않은 머리와 얼굴때문일까?

그런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십분안에 그런 차이점쯤은 쉽사리 지우고 여왕처럼 나타날 자신도 있었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녀는 그 일에 조금도 신명이 나지않을뿐더러 해보기도 전에 허망해져서 어깨를 움츠렸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동화될수없는 차이점은 이제 그녀 내부에 있었고 그건 근심이었다. 한번도 근심이라곤 겪어보지않은 것처럼 오로지 즐겁기만한 사람들속에서 그녀 혼자 크나큰 근심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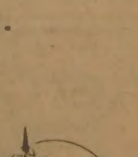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3301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윈

한국일보
[illegible]

經協규모·포함않기로

韓·日頂上 공동성명 양측 意見접근

文書化 요구에 日난색

基本정신만 함축 表示

韓日양국은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中曽根康弘) 일본수상과의 頂上회담이 끝난뒤 12일 발표될 양국 共同聲明에 현안의 經濟協力의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문제를 놓고 협의를 거듭한끝에 經協에 관한 總額규모와 내용은 포함치 않는대신 經協에관한 기본정신을 함축적으로 담는다는데 의견을 접근한것으로 알려졌다.

韓半島 긴장상태 인정

한국측은 당초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을 계기로 타결이 확실시되는 40억달러 經協의 구체적인 내용을 韓日공동성명등 外交文書에 明文化할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국내법상의 어려움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시, 공동성명에는 經協문제에 관한 양국의 기본정신을 함축적으로 표시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10일 『이번 韓日정상회담은 양국지도자의 정치적결단에의한 첫공식정상회담이기 때문에 大局적인 얘기가 오갈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양국 정상모임에서 經協협상을 원만하게타결짓자는 얘기는 나올수 있지만 구체적인 額數가 거론되기는 곤란할것』이라고 『40억달러』규모가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明示되지 않을것임을 示唆했다.

일본측이 經協의 구체적인 숫자와 供與기간등으로 文書化하는데 난색을 표명한 이유는 ▲일본의 예산제도가 單年制이기때문에 현식상 總額供與를 약속할 수 없으며 ▲일본측이 中共, 말레이지아등과의 經協에서도 총액규모를 明示한 先例가 없다는 점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총액규모를 40억달러로하겠다는 확약을 했으나 이 확약을 文書化할 경우 일본국 내법상문제가 따를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일본정부의 정치적 약속이 외교문서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韓日양국은 또 安保부문에 관해 공동성명에 ▲韓半島의 緊張상태를 인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평화에 緊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은 한국의 防衛노력이 한반도의 세력균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관계확립 ▲한국정부의 南北對話추진지지 ▲양국간의 人士및 문화교류추진 ▲全斗煥대통령의 訪日초청등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나까소네 오늘來韓

아베外相등 수행원 52명과함께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曽根康弘) 일본수상과 부인 쓰다꼬(蔦子)여사가 정부초청으로 11일 하오 3시45분 JAL특별기편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아베(安倍晋太郎)외상 다께시다(竹下登)藏相등 공식·비공식수행원 52명과 함께 來韓하는 나까소네수상은 11일하오와 12일상오 두차례에 걸쳐 全斗煥대통령과 韓日頂上회담을 갖고 ▲한반도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 전반 ▲40억달러의 韓日經協문제및 무역逆調시정과 산업기술협력 ▲문화교류 ▲全대통령의 방일문제등 양국의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양국 頂上들은 회담이 끝난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東北亞의 평화에 중요하다는점과 韓日관계의 긴밀화를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까소네수상은 당초 金浦공항에 도착, 도착성명을 발표할것으로 알려졌으나 성명을 발표치않기로했다.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일정과 공식·비공식 수행원 명단은 다음과같다.

◇訪韓일정

▲11일=하오3시45분 金浦공항도착, 환영행사에 참석, 이어 숙소인 新羅호텔에 도착. 靑瓦臺로 全대통령을 예방, 제1차頂上회담을 가진뒤 全대통령주최 만찬에 참석 ▲12일=상오 국립묘지 참배에이어 丁來赫국회의장, 金相浹국무총리를 차례로 예방한뒤 靑瓦臺에서 2차 韓日頂上회담을 갖고 韓日공동성명발표. 이어 金총리주최 오찬에 참석한후 하오2시 內外信 기자회견을 갖고 하오4시 離韓.

◇首相부인 일정

▲11일=하오나까소네수상과함께 全대통령내외를 예방 ▲12일=상오 한후 25분간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환담, 하오엔 국립박물관등 관람.

◇公式隨行員(21명)

▲아베(安倍)외상 ▲다께시다(竹下)藏相 ▲마에다(前田)駐韓대사내외 ▲후지나미(藤波孝生)內閣관방부장관 ▲야스이·겐(安井謙)參議院의원 ▲우노(宇野宗佑)衆議院의원 ▲미하라(三原朝雄)〃 ▲이스루기(石動道行)參議院의원 ▲나까무라(中村弘海)衆議院의원 ▲오꾸다(奥田敬和)〃 ▲나까지마(中島敏次郎)외무성심의관 ▲기우찌(木內昭胤)〃亞洲국장 ▲다나까(田中誠一郎)經企廳조정국장 ▲야나기(柳健一)외무성經協국장 ▲오오바(大場智滿)藏省국제금융국장 ▲나까자와(中澤忠義)通產省통상정책국장 ▲가미와다(上和田義彦)총리대신비서관 ▲하세가와(長谷川和年)〃 ▲이와사끼(岩崎八男)〃 ▲오구라(小倉和夫)외무성北東과장

物價 2~2.5%線 억제

總通貨증가율도 20%로

經濟長官회의, 올 經濟운용계획 합의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협의회를 열고 83년 경제운용계획을 협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2·0~2·5%(도매)수준에서 억제하고 ▲실질성장률은 7·5% ▲수출 2백35억달러 ▲수입 2백50억달러 ▲국제수지적자는 20억달러이내 ▲총통화 증가율은 20%이내에서 억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된 운용계획시안은 오는 13일 黨政협의회를 거쳐 20일께 최종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金埈成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운용상 큰 과제는 저물가·저금리및 환율의 안정속에서 수출신장과 내수진작을 병행시켜 7·5%의 실질성장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안정을 바탕으로한 적정성장이 이룩되도록 왜곡부문의 정상화·경제행위의 능률화등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부총리는 『운용 계획에 책정된 각종경제지표나 시책이 그대로 달성될수 있도록 모든 경제부처가 적극 노력하라』고 시달하고 『분기 마다 새로운 예측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등 가변적인 내외여건에 신축적으로 기동성있게 대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물가상승률 인하에 따른 재정적자확대, 내수진작에 역점을 두는데 따른 국제수지대책, 비료계정, 적자개선책등을 협의했다. 또 금융산업쇄신방안, 주곡자급도 제고문제, 연근해 및 원양어업진흥방안, 임대주택및 도시재개발사업등도 아울러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무, 농수산, 상공, 보사, 건설, 동자, 체신, 노동, 과기처장관들과 교통부차관, 한은총재, 한국개발연구원장등이 참석했다.

趙紫陽中共수상 올 여름訪美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국과 중공은 금년중 2~3회걸쳐 고위급인사의 상호방문을 가질 예정이며 중공수상 趙紫陽이 금년 여름에 워싱턴을 방문하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9일 워싱턴·포스트紙가 보도했다.

동지는 趙紫陽의 訪美는 숄츠국무장관의 중공방문결과에 따라 최종 매듭지어질 것이며, 趙紫陽의 訪美가 이뤄질 경우 이는 레이건대통령의 중공방문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성은 이미 고위인사의 중공방문에 대한 기초작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와인버거국방장관도 중공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오는 2월2일 숄츠장관의 중공방문에 앞서 對중공정책을 광범위하게 평가내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숄츠장관의 訪中과 이어 계속될것으로 보이는 고위인사의 방문으로 이 중공의 에너지개발및 對중공무기판매 문제등에 대해서도 관계를 갖게될 것으로 고위 행정부관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처英수상, 포클랜드群島에 — 포클랜드群島를 방문중인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이 9일 포트스탠리에서 이곳에 설치된 한지뢰밭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포트스탠리(포클랜드群島) 10日AP=聯合】

前方 영하26도 기록

強추위 來日부터 풀려

지난8일부터 연3일째 계속된 강추위는 12일을 고비로 누그러져 예년기온으로 돌아갈것같다.

중앙기상대는 10일 서울이 영하12도까지 내려가고 濟州와 일부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을 계속 영하권에 묶어두었던 날씨는 11일부터 다소 누그러지기 시작, 12일에는 최저 영하8도에서 영하3도내외의 예년과 같은 겨울추위로 돌아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아침 전방고지는 화악산이 영하26도, 백암산영하25도, 백석산영하23도등 영하20도내외로 올들어 최저기온을 보였다.

올 공무원3만5천명 充員

정부는 10일 금년도공무원充員계획을 확정, 올한해동안 모두 3만5천1백26명을 뽑기로했다.

금년도 充員계획인원 3만5천1백26명은 82년 충원계획인원 3만7천1백30명에비해 6%줄어든것이나 82년 한해동안 실제로 충원한인원 2만9천9백98명에비해서는 17% 증가한 것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금년도充員계획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 1만4천5백5명 ▲교육공무원 1만7천1백62명 ▲경찰공무원 2천5백4명 ▲소방공무원 9백55명등이다.

금년도 공무원분야별 충원계획인원을 지난해 실제로 충원한 인원과 비교해보면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2천5백80명과 5천85명씩 각각 늘어난반면 경찰공무원은 2천9백12명이 줄어들었다.

경찰공무원충원계획인원이 줄어든것은 義務경찰제의 실시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崔駐日대사歸國

崔慶祿駐日대사가 나까소네(中曽根)수상의 訪韓에앞서 政務협의차 10일하오8시40분 KAL편으로 일시귀국했다.

朴順天여사 別世

5·16전 民主黨최고위원과 66년 統合野黨이었던 民衆黨 당수를 여성으로썬 처음지냈던 朴順天여사가 9일밤10시30분께 서울江西區禾谷洞 자택에서 別世했다. 享年85세. 【사진】

故朴여사의 永訣式은 13일 상오9시 家族葬으로 거행되며 葬地는 京畿道楊州郡坪內里 천주교묘지.

故朴여사는 구랍29일 자택에서 뇌졸증으로 쓰러져 延世大부속병원에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계속重態로 의식을 찾지못하다 자택으로 옮겨져 치료중 별세했다.

故朴여사는 日帝치하에서는 馬山에서 3·1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치렀으며 해방후 여성단체를 조직, 女權신장운동에 나섰으며 制憲선거때부터 政界에 투신, 2·4·5·6·7代 국회의원을 지냈고 자유당시절 民主黨최고위원, 5·16후 民衆黨당수, 新民黨고문등 野黨의 지도자로 활약했었다.

故朴여사는 71년 新民黨고문을 끝으로 政界에서 은퇴, 權明여중고 재단이사장과 國政자문위원만을 맡아왔으며 최근에는 독립기념관건립위원장을 잠시 맡았었다.

卞熙鎔박사와는 67년에 死別했으며 유족으로는 장남 光皓씨등 3남3녀가있다. 연락처 ⑯2737

원로史學者 李瑄根씨도

원로사학자 霞城 李瑄根박사(사진)가 9일밤 10시30분 서울 江南區 論峴洞 35의3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8세.

故李박사는 1905년경기도 開豊郡에서 출생, 일본 와세다(早稻田)大 사학과를 졸업한뒤 조선일보 편집국장, 漢城日報주필, 서울문리대학장, 서울법대학장, 국방부 정훈국장, 문교부장관, 成均館大총장, 嶺南大총장, 東國大총장, 대한 교련회장, 문화재위원장, 한국 정신문화원장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무궁화장 충무무공훈장 중국金質獎章등을 받았고 저서로는 「韓國最近世史」「花郎道研究」등 26종 36권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金順貞여사(74)와 장남 炳疇씨(과기처원자력위원)와 李炳畯씨(재미과학자)가 있다. 발인은 13일, 장지는 서울銅雀洞국립묘지. 연락처 588-0479

全대통령 弔意

全斗煥대통령은 10일 상오 故朴順天여사 빈소에 成秉春청와대비서실장을, 故李瑄根박사 빈소에는 孫製錫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각각 보내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의를 표하도록 했다.

蘇위성 추락대비 科技處 비상대기

과학기술처는 10일 소련의 원자로위성 코스모스1402호가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에 대비,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설원자력안전센터안에 방사선 비상대기반(반장 방사선관리 특별대책위원 文錫주박사)을 편성, 전문위원들이 비상대기토록했다.

社會漫評

아이구 따스해라…

地平線

동원된 엑스트러만 5천여명. 출연한 배우가 1백80명, 제작기간은 자그마치 4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중국땅 北京에 이르기까지 1백20명의 스태프들이 실크·로드와 바다 뱃길을 따라 왕복했다고 한다. 작년12월 7일부터 나흘동안 한국에서도 방영됐던 텔리비전 영화「마르코폴로」의 거창한 제작규모를 알수있다. 미국·이탈리아·중공의 합동제작으로된 작품이었다.

▼「20세기 최고의 대작」이라던「마르코폴로」도 결국은 일종의「관광영화」에 그치고 말았다. 그럴듯한 선전에 비해서 내용은 별것없었다는 인상이다. 더구나 사실과 다른 엉터리구성에는 허를 찰수 밖에 없었다. 고려의 충렬왕이 쿠빌라이 앞에서 일본정벌의 전략을 獻策하는 난센스도 그 하나다. 도대체 우리의 입김이 나라밖에 나간 일이 없었음을 모르는 무식한 제작진의 잘못이다.

▼「마르코폴로」에는 일본의 陶工이 나오고있다. 이때 일본에는 아직도 자기라는게 없던 시대다. 청자를 빚던 고려陶工이 둔갑을 한것이다. 일본을 우러르는 서양사람들의 편견이 만든 도깨비라고 할수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학자·예술가나 관광·홍보담당 여러 기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잘못을 들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

▼작년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할리우드영화「將軍」은 일본을 무대로한「사무라이 서부극」이다. 미국에서 텔리비전·시리즈로「쿠리」이후 최대의 히트를 친 화제작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알고보면 새디즘과 마조히즘이 엇갈린 저질영화였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때 이작품의 틀린점을 고증한 인쇄물을 미국에 뿌리듯 뿌렸다고 한다. 인기에 편승해서 선전작전을 편것이다.

▼국제관광공사에서 만들어펴낸 중국어관광 안내책자가 엉망이라고 알려졌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저씨요, 경주에는「백제고적」인 석굴암과 불국사가있고, 李方子여사는 금곡에 묻혀있으며, 금강산은 평양부근에 있다는 식이다. 이런것은 약과다. 중국과 한국은「大唐이래」君臣관계였다고 적어놓고있다. 제정신 가지고는 이해할수 없는 노릇이다.

▼영화「마르코폴로」의 엉터리는 일본이「將軍」을 이용했듯이 우리 자신을 선전할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엔 스스로「중국의 신하」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선전」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관광공사가「망신」을 뿌리고다닌 판이다. 우리의 문화외교·관광행정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겠다.

社告

한국일보 金聖佑편집위원(前파리特派員)의 力作

「컬러紀行 世界文學全集」出刊

1980년 6월부터 1982년 5월까지 만2년 동안 한국일보에 주1회씩 애독자 여러분의 절찬속에 연재됐던「컬러紀行 世界文學全集」이 4·6배판 5백페이지 전면호화原色版의 단행본으로 꾸며져 나왔읍니다. 당시 한국일보社 駐佛특파원으로 있던 金聖佑 現編輯委員은 74년부터 이의 준비에 나서 도서관을 뒤지고 1백명 이상의 학자를 방문하거나 편지로 교신했으며 각국의 시청과 鄕土史家들에게 길을 물어 2백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을 두세번씩 방문해야 했읍니다. 金특파원은 이런 취재여행 과정에서 5천컷이상의 컬러사진을 직접 찍었고 이번 단행본에는 그가운데서 精選한 6백70장의 사진이 실렸읍니다.

大文豪 80명 名作무대踏査

2년동안연재…單行本으로

신문연재당시 지면제약으로 못다쓴 기사를 대폭 補筆했고 사진도 신문의 1회당 2~3장에서 평균 8~9장으로 크게 늘렸읍니다. 또 각편마다 작가와 작품소개를 별도로 실어 원작을 읽지못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있으며 각나라별 文學地圖를 포함하여 1백여장의 지도를 넣어 세계문학현장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게했읍니다. 이책은 신문 연재당시의 애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과 성화같은 요청에 보답하기위하여 한국일보社가 발행한것이옵니다.

한국일보社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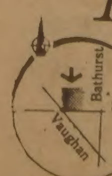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LUCAS YUM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ALLEN DUMA

한국인이 경영하는 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 Free 주차장
■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 주문시 배달합니다.
■ 매일(년중무휴)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신년축복대성회

최 복 규 목사

금번 저희 중앙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은혜와 능력의 종 최복규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하고저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세계부흥선교회 회장
□ 대한신학교 교수
□ 북한선교회 이사
□ 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
□ 선교100주년기념대성회 발기및 실행위원

◇강사: 최복규목사
◇장소: 토론토중앙교회(502 Bathurst at College)
◇일시: 1983년1월19일(수) —23일(주일)
매일저녁 7시30분
새벽기도 6시(토·일)· 낮공부 10시(토)

토론토중앙교회
당회장 정관일목사및 교우일동

사경회 안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라. (신명기 30: 19~20)

일시: 1983년 1월21일(금)~23일(일)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장소: 성도교회당 ☎: 745-7370
87 Elmhurst Dr.
(Islington & Elmhurst)
강사: 김용진 목사
(토론토제일장로교회 시무)

성도교회
김용진 목사

“추락중인 蘇諜報위성 1402號 한국엔 危險 없다”

世界가 전전긍긍 그 實態를 알아보면…

하루 5km씩 地球로 하강

각국서 落塵대비 處理班대기

人口밀집 地域에 떨어질 확률은 희박

고장난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가 통제가 상실된채 서서히 지구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세계각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美플로리다州에 위치한 北美防空사령부(NORAD)는 9일현재 코스모스 1402호가 고도 2백30~2백50km사이에서 90분마다 지구를 한바퀴씩 선회하면서 1일5km씩 하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위성이 고도 65~85km상공에 도달하면 지구의 인력에 끌려 하강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23일께 지구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무게5톤에 49kg의 우라늄235、스트론튬90、플루토늄등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는 코스모스1402호가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질 경우 방사능오염등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 올 가능성에대해 미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위성은 현재 북위65도~남위65로기울어진상태에서 소련 중공 일본 태평양 호주 남미 미국 유럽상공으로 남극에서 북극첨단을 날고 있다.

美당국은 이위성이 하루 3~4번 미국상공을 지남에따라 긴급대책팀을 편성, 美본토에 위성원자로의 파편이 떨어질 경우 고공에서 파괴하는 방법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소련은 핵추진위성의 추락사실을 당초 부인하다가 지난7일 타스통신을 통해 『코스모스1402호가 지난12월28일 그기능이 정지됐으며 원자로는 지상원격조종에의해 미분해된채 해로의작동부분이 지구대기권에 돌입당시 완전히 타버릴 것이며 대기권의 방사능으로 정상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짤막한 성명을 내 위성추락사실을 사실상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 위성터과 모스크바사이에는 서로 이 위성의 核추진장치(원자로)가 대기권에돌입해 지구상에 떨어져 피해를발생시킬 것이라는데 상당한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美항공우주전문가들은 소련은 지금까지 수명이다한 위성의 핵동력부분를 부스터(發射機)를 이용, 고도 9백km이상 높은 궤도로밀어올려 연료의 수명을 다하게하는 처리방법을 써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소련측의 안전하다는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美국방성은 이위성의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확률은 30%에 달하며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한 美국방성대변인 마크·퍼취는 『소련이 원자로를 분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없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측의주장을 예의 점검하고있으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관해서는 예측할 수가없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등 서방우주과학자들은 코스모스 1402호가 서서히 낙하, 그파편이 오는23~30일에 지구로 떨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서방전문가들은 지난78년1월24일 캐나다의 북서부그레이트·슬레이브호수부근에 수많은 방사능이묻은 파편을뿌리며 코스모스954호가 추락한때와 비슷한 소동이 일어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사고는 당시 널리홍보되어 소련은 당시 방사능물질수거비로 6백만달러를 캐나다정부에 지불했었다.

그러나 최초의 핵추진위성의 사고는 지난64년 美해양정찰위성이 인도양상에 불타 추락해 플루토늄으로 대기가 오염된것이었으나 별로 일반에게 알려지지않았다.

그당시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는 이사고로 해방사능이 광활한 지역에 흩어졌지만 인체건강에는 별영향이 없는 정도였다고 결론지어졌다.

美국방성 존·휴즈대변인은 『코스모스1402호가 지난78년에 떨어졌던 것과 같다면 핵연료는 대기권진입시 고공에서 타버려 큰 피해는 없을것이며 위험한 유일한 사태는 지상에 떨어지는 몇개의 방사능물질 파편정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8년에 추락한 소련핵위성은 대기권진입시 타버려 대부분의 핵물질은 대기권에서 약4개월간 떠돌다서서히 낙진으로 떨어졌고 경미한 방사능물질파편이 캐나다지역에 떨어진 것이었다.

한편 영국의 일부우주과학자들도 코스모스 1402호가 가져올 위험은 그리 큰 것으로 보지않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만일의사태에 대비, 부산을 떨고있다.

미당국은 위성파견의 추락위치를 포착, 미국 어느곳이든 신속히 제거팀을공수해 방사능오염파편을 제거하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원폭 피해를 입어 핵알레르기를 가진 일본은 7일 재빨리 합동위기대책반을 구성했고 이탈리아도 군·경·소방관등을 동원, 비상태세에 돌입하고있다.

문제의 코스모스 1402호는 4개월전에 쏘아올려져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등 주로 大洋를 상대로 스파이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美항공우주관계자들은 이미 코스모스1402호가 3부분으로 분해됐으며 이중 한부분이 이미 타버렸다고 발언, 앞서 소련측발표를 일부 뒷받침해 주었다.

파편이 어느지점에 떨어질지는 파견이 고도9·7km지점에 도달해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할 수있는 시간은 90분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피해예상가능지역으로 한반도에 떨어질확률은 1만분의1,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져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어도 10만분의 1이상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구궤도위에는 4백~5백여개의 위성의 교통혼잡을 빚을정도로 빽빽이 돌고있어 앞으로 코스모스1402호와 같은 사고는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東海寶기자】

◇지난78년 캐나다북부 그레이트·슬레이브호에 소련핵추진위성 954호의 파편이 떨어지면서 2·7m의 큰구멍을 내뒤 얼음장을뚫고 들어간것을 한남자가 살펴보고있다. 【사진】

메아리

成功事例

한 집안 3형제의 大入학력고사 득점이 1천점 가깝다. 예비고사 시절로부터 차례로 따낸 성적이 들쭉이 3백점이상인 것이다.

그 댁의 맏이는 警大로 진학했다. 둘째는 法大」 요즘의 大入풍조로 하면 예전의 「二子膏科」 쯤은 되는 경사다.

그런데、세째에 이르러 「고민」이 생겼다. 고사성적을 받아 보고、警大로 보낼까、法大로 보낼까 망설이던 참인데、당자가 「그야말로 「혐연없는 科」로 진학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년도 그 科의 커트라인은 세째의득점보다 30몇점이나 아래였다. 그 30몇점이 아깝기도 하려니와、그 科를 나온 뒤의 「고생 길」이 훤하듯했다. 세째를 설득하다 못해、아버지는 맏이와 둘째를 불렀다. 제가끔 警大로 오라、法大로 오라 제출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두형은 모두 의견을 유보한채 말이 없었다.

결국 세째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로진학했다. 아버지도 警大나 法大를 무조건 고집할 위인은 아니었으므로 세째 하자는 대로했다.

나는 이댁을 大入또는進路지도의成功事例로 치부해두고있다. 특히 세째가원하는 科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얼핏 형들이 警大와 法大로 진한한 집안이라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려니 생각할지 모르지만、그 집안의 내력을 아는 나는、형들이 다른 학과를 지망했더라도 막무가내로 막지는 않았으리라고 믿는다.

물론 누구나가 3백점이상을 딸수 있는 것이 아니니、이 事例는 예외적이다. 더구나 올처럼 高得點사태가 나면、성적이 웬만하다고 해서 느긋 할 수만은 없다. 다음은 그런 경우다.

이 댁에서는 올 처음으로 맏이가 학력고사를 치렀다. 지망은 아버지와같은 經商系、성적은 3백점을 약간 넘었다. 작년에는 이수준의 점수를 받으면、지망학과 합격이 무난했다. 그러나 올 사정은 다르다. 그것이 「고민」이다.

그러나 이 댁은 원서접수 첫날에 벌써 「統合格」을 했다. 지망학과를 바꾸는 대신 지망대학을 바꾸었다. 그래봐야 「1류대학이기는 마찬가지」. 원서접수 제1호의 접수증을 받아들고、이제는 1등 합격여부가 관심거리라다.

나는 이경우도 成功事例로 치부한다. 대단한 成功일것이 없는듯 하지만、무슨 학과이든 꼭 어느 대학으로 가야한다는 요즘 풍조에 비추어서는、마음먹은 進路를 찾아간것이 현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금년처럼 高得點과 同點이 많아지면、進路선택은 물론 進路지도도 어렵고 학부형으로서의 결심도 어렵다. 고작 해보느니、대학과 학과의 서열을 매겨놓고 當落의 占卦를 내는 정도이다.

답답한 나머지、이른바 「전문가」의 말이란것을 신문에서 읽어봐도、막막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들은 하나처럼 「배짱은 안통한다」、「눈치作戰은 어리석다」고 호령한다. 그러면서、점수분포가이러하니、所信을갖고 지원서를 낼수 밖에없다고 충고한다. 内申과 女學生이 새로운 變數로 등장했으니、「下向志願」으로 안전합격을 겨냥해야한다고도 일러준다. 그러나 그말들이 바로 배짱과 눈치의 권장이 아니면 무엇인가. 소용닿을데 없는 自家撞着이다.

이래서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을때는、進路선택의뜻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있다. 進路가 일생 걸어 갈 길이라면、그 선택에있어서、가장 중요한것은 그길을 걸어 갈 본인의 의사다. 학부형과 進路지도교사의 역할은 본인의 적성과 자질을 가늠해보고、그가 가고자하는길의 뜻을 일러주어、그의 결심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되도록 유도하는데 그쳐야한다.

고사성적과 커트라인은 이 다음의 고려대상이다. 이단계에서 한번 여러대학에 있는 지망학과와 그유사학과의 일람표를 만들어 볼 것이다. 그 중에서 예상 커트라인이 내 점수와 가장 근사한 科、그대학이 내가갈 대학이다. 이것이 占卦의 효용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고른 科와 대학이 너무 처진다고 생각되면、처음부터 進路를 고쳐잡는것이 현명하다. 당초의 進路를 고집해봐야 그앞에 깔린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빤간통이 커진 셈이니까. 그리고、경우에 따라서는、進學을 않는것이 반드시 좌절만은 아니요、하나의 進路선택일을 생각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大入의 進路선택이란 결국 학과―學問分野의 선택이지、대학의 선택은 아니란 점이다. 특정한 대학의 名聲―대개는 虛名일뿐이지만―은 어디까지나 副次的이다. 그렇다면 특정대학을 찍어놓고、1백80도 다른 방향의 학과사이를 헤매는것은、進路선택이라기보다는、갈없는者의 右往左往과 다름없다. 적어도 특정대학의 틀을 넘어서서 進路를 선택하는 현명함이 아쉽다.

근래 일류대학·人氣학과의 選好가 지나치다는 개탄은、나라와 사회、개인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適材適所를 생각함이다. 進路선택의 요체도 適材適所 한마디에 그친다. 그 경우에 「適所」가 어디인지의 판단은 본인 우선일것、그리고 그「適所」의 선택기준은 대학아닌 학과중심이어야할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海外토픽

◇自由만끽하는 바웬사 조카딸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다 최근 프랑스로 망명한 前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질녀 알도나·코젤비츠양(22)이 8일 에펠탑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있다. 바웬사부인의 언니딸인 코젤비츠양은 파리에서 모델로 진출할 예정. 【파리8日AP합동=聯合】

職場이탈 集中단속

★蘇경찰·黨行動대원동원

소련경찰과 黨행동대원들은 작업시간중의 직장이탈자 및 근무태만자를 가려내기위한 전국적인 단속작업을 개시했다고 소련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한소식통은 제복을입은 경찰들이 최근 한술집에 들어가 단골손님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이명단에 나타난 사람이 근무시간중에 술을 마시고 있을 경우에는 즉각 술집에서 쫓겨나 직장으로 돌아가야하며 이사실은 그의 감독관에게는 추후 통보된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AP】

蘇가 칼로리낮아

★CIA 美·蘇 음식물분석

미국인과 소련인들은 하루 같은양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으나 곡물등 칼로리가 낮은것에 치중하고 있는 소련 음식물이 더 영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美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지적.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육류·생선·설탕등 한사람이 하루평균 3천5백20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반면 소련인은 곡물등 3천2백80칼로리 상당의 음식물을 소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영양기준으로 볼때 보다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먹고 육류와 설탕을 적게 먹는동시 곡류를 보다 많이 먹는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

포클랜드英雄 무어將軍 집도없는 失業者신세로

7개월전 포클랜드 전쟁때 영국군의 상륙작전을 지휘하여 아르헨티나 수비군의 항복을 받아냈던 제레미·무어(54)퇴역해군소장이 3백만명에 이르는 영국실업자들가운데 한사람으로 끼었을뿐 아니라 자기소유의 집한채도 없는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영국의 더·뉴스·오브·더·월드지는 포클랜드전을 승리로 이끌고 귀국후 국가적 영웅대접과 함께 기사작위까지 수여받았던 무어장군이 지난해 크리스머스 직전 퇴역한후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런던=AP】

故 朴順天여사 靈前에

언제나 剛과 柔를 함께하시더니…

내외로 酷寒이 위세를떨치는 이 계절에 선생님의 訃音에접하고보니저의가슴은 더욱 寒氣를 느끼지 않을수 없나이다.

며칠전 病床으로 찾아뵈었을때만해도 沈重한 病勢속에서도 이나라의 장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대해 희망과 투지를가지고 의연한 자세를보여 주시던 선생님。

이렇게 홀연히 가시고보니 뒤에남아있는 이나라의 민주주의를위해 民征을 계속해야하는 저희들로서는 指導를잃은 대열처럼 방향과 갈피를 잡을수 없읍니다。

선생님께서는 내외로 風雲이 몰아닥치던 韓末에태어나시어 일찍부터 이나라와 겨레가 겪지 않으면 안될 기구한運命과 慘憺한운명을 함께 해오셨읍니다.

선생께서는 日帝時、一方으로는 농촌계몽운동、여성을 위한 사회사업운동을펴시면서 他方으로는 은밀한 가운데 독립운동을 전개하심으로써 여성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辛酸한 고통과 困囲의 생활을 겪어 내기도 하신바 있읍니다.

선생님께서도 政界에 투신한이래 전통야당의 보루가된 民主黨이 창당하는데 결정적인 一助를 하심으로써 海公申翼熙 維石趙炳玉 雲石張勉선생등 綺羅星같은 야당지도자들과 班列을 같이하시여 民主黨의 최고위원、그후 통합야당인民衆黨의 당수를 지내시기도 했읍니다.

선생님은 이나라 야당의 生理라고도 하는 派閥간의 이해가 첨예화되었을 때는 언제나 中庸의 입장에서 이를 화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다운 부드러움과 直說的인 설득력으로 뭇 남성 지도자들을 침묵케하는 卓越한 정치력도 具有하고 계셨읍니다.

선생님은 성격적으로는 剛과 柔를 兼全하시고 또 理性과 感性을 적절히 조화시킨 드문 女傑이셨읍니다.

특히 정치와 가정을 兩立시키는 한국여성의 師表가 되고도 모자람이 없는 典範을 남기셨읍니다.

때문에 남성중심인 정치사회에서도 그누구도 선생님을 여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으며 그 아무도 선생님께서 여성다움을 잃은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선생님께서 과거 釜山정치파동시 拔萃改憲案에 대한 기립표결이 있을때 과감히 이를 박차고 退場하시던일、獎忠公園에서수십만 군중을 놓고 獅子吼를 吐하시던 일、2·4파동때 며칠밤 며칠낮을 농성하시면서 우스개얘기로 지쳐있는 동료들을 慰撫하시던 일등…。

생각해보면 저 어두운역사의 뒤안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走馬燈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정치 지도자에게는 언제나 毁와貶이 따르게마련이라지만 선생님의 介潔한 인격과 높은 정치력은 이나라 萬世에 영원히 기려질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부디 저세상에서나마 冥福을 누리소서.

柳致松 〈民韓黨총재〉

軍縮문제등 관계개선위해

蘇와 언제든지 對坐

——레이건、週例방송연서 밝혀

부시 西歐巡訪

【워싱턴AP合同=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8일 최근 소련으로부터 軍縮문제에 관해 『다소 고무적인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東西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련과 『언제든지 대좌할 용의』가 있다고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週例라디오방송연설을 통해·또 조지부시 美부통령이 서구에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평화및안보공약』을 강조하기위해 이달부터 서구7개국을 순방하며 로마교황청에 들러 요한·바오로2세교황과도 회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시 부통령의 공보비서 피터·텔리는 부시부통령이 1월30일 워싱턴을 출발, 서구8개도시를 순방한후 2월10일 귀국할 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우리는보다 합리적이고 진정된 동서관계개선을 가져올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위해 소련과 대좌할 용의가있다』고 말하고 美蘇관계가 개선되려면 소련이 행동을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최근 소련이 보다 합리적인 자세를 보이려는듯 고무적인 얘기들을 하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같은 얘기들은 소련측이 행동을 자제할때만 설득력을 지니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과 그 우방들이 소련으로부터의 진지한 행동과 제안들을 열렬하게 고대하고있다고 말했으나 美蘇정상 회담문제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최근 제안한 동서불가침조약체결 제의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유럽에 대한 美國의 평화및 안보공약을 거듭 다짐하기위해 부시 부통령이 이달말부터 西獨·스위스·벨기에·英國·이탈리아·프랑스및 네덜란드등 7개국을 순방하고 로마 교황청에도 들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후세인과 아라파트의 邂逅 후세인요르단국왕(右)이 9일하오 요르단수도 암만에서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을 맞이하고 있다. 【암만9日AP합동=聯合】

北傀 副主席 康良煜 사망

【서울=聯合】北傀副주석 康良煜이 9일 8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北傀보도기관들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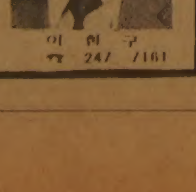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961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MISSISSA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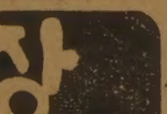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 [illegible] USED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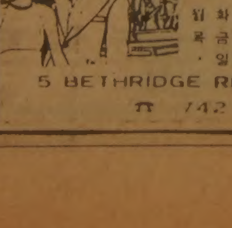


이 현 구
☎ 247-7161
1575 WESTON RD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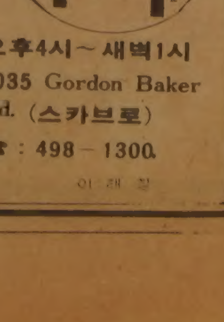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中上位圈 지원망서려

대학窓口마다 情報싸움 한창
名門인기科 미달사태 올지도

내일마감…한꺼번에 몰릴듯

◇원서접수窓口앞「눈치」 원서접수가 중반에 접어들었으나 각대학의 접수창구는 예년에없이 한산하다. 접수창구에서 서성이는 수험생들은 지원서 준비없이 눈치를보는 사람들이더많았다. 【10일하오서울S大에서】

원서접수마감일을 이틀앞둔 10일 하오현재 서울大 延大 高大등 각대학의 원서접수창구에 몰려든 지원자는 예년에 비해 10분의1도 채안되는 숫자에 그쳤다. 또 종전같으면 원서접수 시작과 더불어 끝나는 일선고교의 진학상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오는12일 원서마감일에 가서야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큰혼잡을 빚을것같다.

원서접수때의 눈치작전과 이에따른 명문대 인기과의미달사태를 막기위해 문교부가 권장한 ▲초반의 학교별 단체접수▲접수상황 수시발표제 등이 일선학교가제대로 지키지않고있어 올해도 명문대 인기학과의 미달사태는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서울大의경우 모집인원이 6천5백20명인데 원서접수 첫날인 지난8일 60여명만이 지원, 지난해1천8백여명의 30분의1에 불과했으며 3일째인 10일에도 6백여명만이 지원, 3일간 7백1명에그쳤다.

서울大 접수창구에서는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는 접수하지않고 미리 전형료를 납부, 영수증만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마지막날의 창구혼잡때 손쉽게 학과를 선택해 지원하기 위한 편법인것으로 보인다.

현재 접수창구에 원서를제출하는 수험생은 지난해와마찬가지로 대부분 아주 높은 상위고득점자들뿐이며 3백점대의 중상위 득점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다.

서울大 전체96개 모집단위중 3일동안 52개모집단위에는 지원자가 한명도없다.

서울大의 한관계자는『고득점자가 대량으로나왔고 또동점자가 많아진데다가 모집단위가 대학·계열별에서 과별로 바뀌어 눈치작전이심해졌으며 이런상태로는 미달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高麗大도 마찬가지로 10일하오5시 현재 3일동안의지원자는 5백93명에 그쳤다.

延世大(모집인원 5천5백90명)는 10일하오까지 1백8명지원에 그쳤는데 지원자대부분이 학력고사 고득점자로 합격이 확실한 지원지이거나 자신의점수보다 훨씬 낮춰 희망과에 지원한 학생들로 학력고사중 상위권득점자들은 지원을 늦추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날하오 延世大 접수창구에는 입학원서를 갖고있지않은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기웃거리며 정보를 얻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梨大의 경우도 이날 몇몇 수험생들이 접수를 시켰을뿐 매우 한산했는데 상오 11시30분께 화학과에 원서를낸 李모양(17·F여고출신)은 접수번호 1번을 받아들고는 어리둥절해 하기도했다.

D高 진학상담의 경우일요일인 9일 3백여명의 수험생이 상담을 했으나 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력고사 점수가 3백10점이상인 5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일선고교들은 11일부터 본격적인 진학상담을 하고있으며 S高는 10일현재 10여장의 원서를 작성하는데 그쳤는데 학교측은 학부모들과의 마찰이 두려워 개별 접수시킬 방침이다. 또 사립명문 K고교는 진학방침을바꿔 명문대의 진학보다 전체대학의합격을 최우선으로해 합격예상 점수보다 5점정도 낮게 하향지원토록 권장하고있다.

J·C학원등 입시학원들은 지난8일부터 일반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상담 교실을 열고 상오 11시, 하오 2, 4시등 3차례씩 진학지도강좌를 하고있는데 C학원의 경우 지난8일 2천여명, 9일에는 1천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석, 성황을이뤘다. 【朴珍列기자】

大學別 접수상황

한편 이날 하오5시 현재 각대학별 입시원서접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梨大=2백33명▲淑大=1백24명▲慶熙大=8백57명▲漢陽大=2백82명▲檀國大=5백1명▲東國大=1백62명▲國民大=2백83명▲延世大=4백39명▲西江大=1백10명▲成均館大=5백20명▲外國語大=1백77명▲가톨릭醫大=31명▲中央大=4백2명▲世宗大=2백25명▲誠信여대=1백6명▲高大=5백93명▲서울大=7백1명(인문대48、사회과학대69、자연과학대1백26、가정대1、경영대42、농대24、미대82、법대92、사범대57、수의대3、약대3、음대75、의대간호학과1명)。

의사誤診·手術잘못등 紛爭처리
醫療심사調整委 설치
보사부·市道에

의사의 오진,잘못된수술등에서오는 각종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사부와 전국시도에 설치돼 오는 21일부터 가동된다.

보사부는 10일 의료법시행규칙이 발효되는 오는 20일까지 위원위촉을 모두 마치고 21일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도록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이번에 발족되는 심사조정위원회는 보사부에 중앙의료심사위, 시도에 지방의료심사위를 설치하는 이원적구조로 돼있으며 해당기관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의료인·법조인및 언론인등 7~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사부는 ▲2개시도 이상이 관련된 분쟁사건과 ▲지방위원회에서 조정할수 없는 성격의 사건은 중앙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은 원인발생 1년이내에 해당시도지사에 신청토록돼있는데 ▲수사기관·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경우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의 오진·수술잘못등으로인해 주로 빚어지는 의료분쟁은 해마다 늘어 81년 한해만도 2백50여건으로 그동안 전국15개도시의 1천4백24개 의료기관중 66·1%인 9백40군데가 의료분쟁을 경험했으며 외과·산부인과 등의 수술에서 특히 자주발생하고있다. 그런데 분쟁건수의 55%가량은 형사사건으로 번졌지만 이중86%가 의사의 무죄로 판가름났었다.

國選변호사비 差等인상키로

국선변호료가 실비에 따라 차등조정되면서 액수도 인상됐다.

대법원판사회의는 10일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건당 2만원이던 국선변호료를조정, 제1심및 구속적부심청구사건은 현행대로 하되 제2심(항소심) 사건은 2만5천원, 제3심(상고심) 사건은 3만원씩으로 증액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조정된 액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郭씨、계속횡설수설 KAL機사건 수사

【東京=宋孝彬특파원】속보=일본경찰은 10일 대한항공 보잉747점보여객기의 일본 나리따(成田)공항 비상착륙사건과 관련, 용의자로 체포한 중국계 캐나다인 郭永明(31)이 수사과정에서 터론토에 있는 KAL사무소로 폭발물장치허위정보가 담긴 편지를 보낸것으로 밝혀졌으나 몽둥이를 든 사람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등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경찰은 郭의진술이 명료치않다면서 지난 1년동안 그가 홍콩에서 큰몽둥이를든 사나이에게계속쫓겨왔다는등 횡설수설하고있다고전했다.

경찰은 郭이 홍콩에서 고교교사로 재직해왔으나 지난 12월3일 이사나이로부터 도망하기위해 어머니와 형님이 살고있는 홍콩을떠나 캐나다로 피신한것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산소용접기로 金庫깨
5천만원턴 20代구속

【大邱】대구西部경찰서는10일 산소용접기를 동원, 사무실철제금고를 부수고 현금·자기앞수표등 5천5백여만원을턴 權永大(20·주거부정) 朴成彦(20·대구西區飛山1洞704의3) 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해12월14일자정께 대구北區 鳥院2洞349 한국타이어 대구지점사무실에 침입, 준비한 산소용접기로 철제금고문을 절단한후 금고속에 있던 현금15만원, 자기앞수표등 5천5백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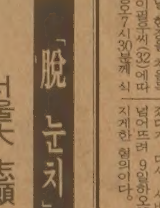
철공소종업원출신인 이들은 범행대상을 미리 물색한후 범행전날밤10시께 대구北區 대성종합공업사(주인김대기·31)의 셔터를 만능열쇠로 열고들어가 산소용접기와 산소통등 금고절단에 필요한 기구일체를 훔쳐 리어카로 범행장소까지 운반, 범행했다. 【龜】

釜山、시내버스서 千5百여만원 소매치기당해

【釜山】시내버스를 타고가던 승객이 차내에서 현금과 자기앞수표등 1천5백60만원을 소매치기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9일 상오11시께 오정식씨(52·海雲臺區佑1洞106)가 南區大淵洞에서 83번 시내버스를 타고 직장부근인 釜山鎭區釜田洞에서 내렸는데 상의 안호주머니속에 들었던 현금50만원과 제일은행발행 자기앞수표 4백10만원짜리 1매, 외환은행발행 5백만원짜리 1매, 1백만원짜리 6매등모두1천5백60만원을소매치기당했다는것. 【龜】

「脫 눈치」 서울大 志願 제1호 金憲洙군
"目標가 뚜렷하니 주저할것 없지요"



서울大 원서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8일 상오9시30분 서울大배지를 단 한학생과 그보다는 나이가 3~4세 더 들어보이는 청년이 손에 봉투를들고 원서접수처인 학생회관 2층에 들어섰다. 이들은 원서접수처를 휘둘러본후 학생회관식당에 들어가 코피를 마셨다.

상오10시 원서접수가 시작되자 이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인문Ⅱ계열 접수창구로 다가갔다. 나이든 청년이 손에 든 봉투에서 자신의 사진이 붙은 원서를 꺼내 망설임도 없이 창구에 내밀었다. 담당직원이 접수하는 사이 서울대생은 접수처에 다른사람이 하나도 없는게 이상한듯 밖을 기웃거렸다. 접수를 마치자 서울대생은 나이든 청년에게 서울大 면학분위기를 알려주려는듯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원서를 접수한 나이든 청년은 서울大원서접수1호인 金憲洙군(25·사진)이었고 서울대생은 서울대의 예과1년생인 그의둘째동생이었다. 金군은 원서접수를 위해 동생과 같이 이날 상오8시 水原집을 나섰다.

78년 水原 水星高를 졸업한 金군은 그해 K大 전자공학과에 진학, 2년동안 다녔지만 적성에 맞지않았다. 80년4월 휴학계를 내고 입대하려했으나 81년6월부로 방위소집영장이 나왔다. 1년여를 기다렸다. 이동안 대학입시공부를 다시하기로 했다. 마침 지금 서울大 의예과에 다니는 둘째동생이 高3이라 닥치는대로 물었다. 81년 6월부터82년6월까지 방위소집 근무를하는동안에도 틈틈이 책을 읽었다.

만학이지만 이번 학력고사에서 첫시간을 치른후 자신감이 생겼다. 예상대로 발표된 점수는 3백12점으로 괜찮았다. 서양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찍부터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원서를 접수했다.

『눈치다 배짱지원이다 말이 많더군요. 원서를 품고 있어 보아야 뭐 족한 수가 있나요. 마음이 흔들릴까봐 서둘러 접수시켰읍니다. 낙방하는 일이 없다면 훌륭한 사학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도서관을 거쳐 교문을 나선 金군은 많은 수험생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모집요강을 사는걸 보고『78년 대학별로 시험을 치르고 들어갈때가 편했다』고 말하고싶은 눈치였다. 【鄭在龍기자】

피해액 20倍불려 請求
火災후 서류造作한 商店主구속
保險노린 放火혐의

【大田】충남도경은 10일 화재를 당한후 관계장부를 허위로 작성, 실제피해액의 20배에 가까운 19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려던 대전中區沙亭洞495의1 동양상사대표 김중웅씨(38)를 사기미수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하오9시40분께 동양상사물품창고에서 불이나 창고안에있던 설탕·비누등이 모두타 1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나자 상품재고장과 매입·매출장을 허위로 작성, 화재로 불탄상품이 19억5천여만원어치나 되는것으로 속여 지난6일 동방화재해상보험지점에 통보했다가 들통이 났다는것.

金씨는 지난해 4월 설탕과 비누등 생활필수품 도매상인 동양상사를 개업, 지난해 8월 동방화재해상보험全州지점에 20억5천만원짜리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모두 6백7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경찰은 金씨가 지난79년에도 光州에서 자신이 경영하던 점포에 불이나 동방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사실이 있는것을 밝혀내고 이번화재도 보험금을 노린 방화가 아닌가보고 수사중이다. 【龜】

50代걸인 光州、강추위에 凍死

【光州】영하6도4분의 강추위가몰아친 10일 상오10시 光州市東區鶴洞 광주대교 아래에서 신원을알수없는 걸인행색의 50대남자가 동사한것을 행인들이 발견했다. 【龜】

船員27명 모두救助
8천t급 韓國籍선박 스리랑카南部서 沈沒

【런던=聯合】8천8백20톤급 船主로돼있는 한국어선 밸부·루트호가 스리랑카남부 영해에서 침몰했으나 선원27명은 다행히 영국선박에의해 모두 구조됐다고 영국의 로이드선박회사가 9일밝혔다.

로이드社는 1만3천톤의 망간광석을 싣고 스리랑카해역을 지나가던 밸부·루트호가 8일 침몰하자 선원27명은 구명정으로 옮겨탔다가 구출됐다고 전했다.

로이드社는 그러나 밸부·루트호는 그대로 가라앉고말았다고 덧붙였다.

東海생명 蔚山소장 2천여만원 가로채

【釜山】부산동부경찰서는10일 생명보험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등을 유용한 동해생명보험 蔚山영업소장 金百淵씨(54·東區水晶5洞41의9)를 업무상횡령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지난5월까지 蔚山市 新亭洞1287소재 동해생명영업소에서 피보험자 단체업소인 蔚山시내 대한알미늄사등 17개업체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1천1백70여만원을 본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써버렸고 본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1천여만원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않고 유용한혐의다. 【龜】

40代식당女종업원 목졸려숨진屍體로

【忠武】10일상오7시30분께 巨濟郡 長承浦邑 玉浦里403의1 서울식당에서 종업원 이평순여인(41)이 스카프로 목이 졸린채 숨진시체로 발견됐다. 이날 현장을 처음발견한 주인 이필구씨(32)에 따르면 이날상오7시30분께 식당에 나와보니 이여인이 하의가 벗겨진채 스카프로목이 졸려 숨져있었다는것. 【龜】

사돈과 是非…致死

【釜山】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시비로 사돈을 밀어 숨지게한 정원석씨(36·南區大淵2洞1623)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정씨는 지난9일 하오4시께 인근에사는 사돈간인 백승숙씨(41·南區大淵2洞1618)집에서 전날 말다툼한것을 사과하러 찾아갔다가 다시 시비, 백씨를 넘어뜨려 9일하오10시께 숨지게한 혐의이다. 【龜】

警察大、신입생선발 朴成東군 首席차지

경찰대학은 10일 83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1백20명을 선발,발표했다.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각 60명씩인 합격자의 이번 대입학력고사 평균성적은 3백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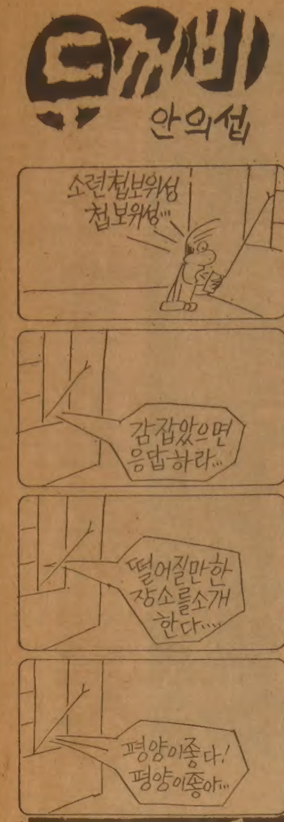
수석합격은 부산東成고교 朴成東군(18·사진)으로 경찰대학 입시성적은 7백25점 만점에 6백25점이었고 대입학력고사 성적은 3백29점이다.

이번 경찰대학합격자는 모두 3천4백96명이 응시 30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保管벼팔고 逃走 정미소주인 令狀

【漣川】경기漣川경찰서는10일 정미소에 보관시켜놓은벼를 몰래 처분하고 달아났던 李龍河씨(40·漣川郡漣川邑生旨洞312)를 사기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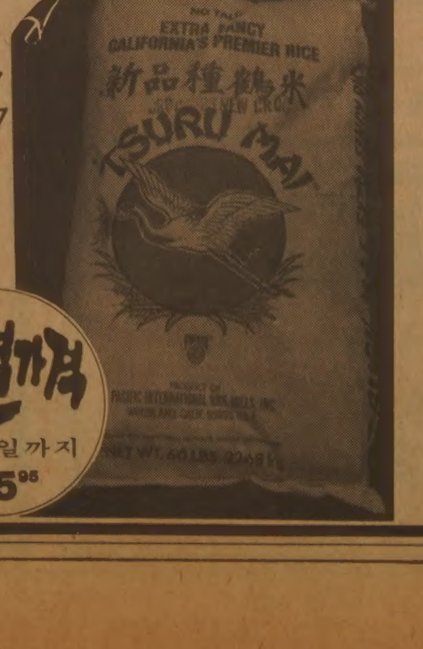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76년부터 漣川郡漣川邑生旨洞소재 생지정미소를 이마을 黃모씨(72)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해오던중 지난해 12월28일 주민 鄭炳연씨(50)등 72명이 보관시킨 벼 1천1백90가마(싯가 4천9백64만원)을 몰래 처분하고 가족과 함께 달아났던것이다. 【龜】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금성수입품 금주의 스페샬

■미국 캘리포니아산
선학 햅쌀



특별가격 1월31일까지 $15.95

■ 물오징어(특대) 89¢ ~~$1.35~~
■ 한국산 닭표간장 $1.49 ~~$1.95~~

□판매처 삼복식품·제일식품·한발식품 서울식품(동부·서부·해밀톤)

□수입원 : 금성 Company Ltd.

姜斗泰 대표선수 돌연辭退

"어깨근육負傷 재발 소속팀서만 뛰겠다"

남자排球 戰力 휘청

남자배구 왼쪽 주공격수 姜斗泰(25)가 10일 대표선수 사퇴를 선언, 대표팀전력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78년부터 대표팀 부동의 왼쪽 주공으로 각종국제대회에서 맹활약 해왔던 姜斗泰선수는 10일 『오른쪽 어깨 근육부상이 심해 대표팀 훈련을 따라갈수 없다』고 밝히고 현재 臺灣에있는 曺培浩감독에게 이미 대표선수 사퇴의사를 알렸고, 曺감독이 귀국하는대로 대한배구협회에 사퇴를 공식통보 하겠다고 말했다.

姜斗泰는 그러나 『우리가 가지않는 훈련은 어느정도 소화할수 있으므로 소속팀인 金星선수로는 계속뛰겠다』고 덧붙였다.

姜斗泰가 어깨를 크게 다친것은 지난해 日本NHK컵을 다녀온 직후부터. 어깨를 움직이게하는 4개의 근육가운데 극하전(棘下腱)이 파열되어 82년4월부터 10월까지 훈련을 받지못했으며, 11월 세계남자배구 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姜斗泰는 물리치료와 활기도요법을 받으며 재기, 뉴델리아시안게임및 국제군인선수권대회에 합류했으나 무리를하는 바람에 어깨부상이 악화, 현재 金星팀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고있다.

姜斗泰가 대표선수로 처음 발탁된것은 78년 제9회 세계남자선수권대회. 당시 漢陽大2년생이면서 金星에 소속됐던 姜斗泰는 선배姜萬守와 함께 레프트공격수로맹활약, 한국이 4위로 입상하는데큰 역할을 해냈다.

같은해 방콕 아시안게임서는 한국우승의 견인차노릇을 했고 79년 멕시코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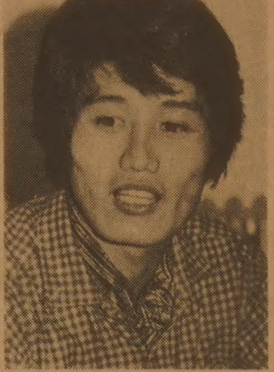
지난해 日本 NHK컵대회서 세계랭킹 2위의 쿠바와 홈팀 日本을꺾고 우승하는데 큰몫을 했다.

姜斗泰는 대표팀은퇴를 선언한 후 『부상치료에 전념하고 소속팀 金星선수로 있는힘을 다해 뛰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漢陽大체육과 대학원에 진학, 체계적인 스포츠이론을 공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姜斗泰의 은퇴에대해 배구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오는10월 LA올림픽예선전(日本)의 전력차질을 우려했다.

배구협회 朴勝洙총무이사는 『姜斗泰는 대표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부상이 심하다면 곧 시작할 강화훈련에는 제외시켰다가 장기치료를 받게한뒤 다시 복귀시키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남자선수=張海秀(수협) 裵南主(성원고) 金炳浩(강릉고) 盧賢錫(대전고) 陳大成(명창종고) 鄭基柱(마포고) 崔城熏(전남기공) 朴旼敎(울산고) 金載植(건대부중) 宋昊錫(마포중) 金太星(부산동중) ▲여자선수=崔乙善(선명여상) 金蘭姬(주문진여고) 曺敬淑(조선부여고) 朴美淑(경북여고) 金明姬(충남여고) 金一順 李靜明(이상 안양서여중) 李垠周(충남여중) 朴仁淑(남원여중) 金昭暎(중앙여중)



◇대표선수은퇴의사를 밝힌 姜斗泰선수. 앞으로 어깨부상이 낫더라도 대표선수로는 뛰지 않겠다고 말했다.

美여자팀優勝 브레멘 국제排球

【브레멘(西獨) AP합同=聯合】 美國여자배구팀은 9일 브레멘국제배구 선수권대회에서 쿠바를 3-1로물리치고 5전전승으로우승을차지했다.

쿠바는 美國에 패배, 4승1패로 2위에머물렀고 西獨은 3승2패로 3위를 차지했다.

세계선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中共은 이번대회에서 2승3패로 4위에그쳤고 폴란드가 1승4패로 5위, 프랑스는 5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女배영百m 東獨 오토 59초97 世界新

【인디애나폴리스(美인디애나州) AP합同=聯合】 東獨의 크리스틴·오토(16)는 8일밤 美인디애나大學의 실내수영장에서 속개된 제6회 국제수영대회 여자배영1백m에서 59초97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崔允喜 여자배영1백m 최고기록 1분05초84〉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初年生들 亂打戰

新人王戰 判定퍼레이드… 22명決勝에

82년 프로복싱 신인왕선발대회 준결승전이 9일끝나 11체급 결승진출선수 22명을 확정했다. 9일 하오 문화체육관에서 속행된 5체급준결승전에서 플라이급 孫鍾國(대원공작)을 비롯한 5개체급10명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16일 문화체육관에서 열리며 이날최우수 신인및 우수신인을 선발, 특별 표창한다.

9일 준결승은 막상막하의 난타전으로 이어졌다. 라이트급 朴永在(광무)는 申興植(극동서부)을 맞아 신인답지않은 다양한 공격을 펴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고지에 올랐다. 朴은 여러각도에서 다양한 주먹을 터뜨려 일방적 우세를 잡아 낙승했다.

같은급의 왼손잡이 金鐵浩(극동중앙)는 원투훅 카운터와 스트레이트로 吳泰日(주승)을 공략하다가 4회 吳가 버팅으로 오른쪽 눈위를 다쳐 3회까지의 채점에 의해 金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밴텀급서는 金容雨(현대칼라)가 같은왼손잡이인 鄭癸來(극동중앙)를 소나기펀치로 몰아붙여 판정승했다.

金은 초반부터 저돌적으로 대시, 좌우훅과 어퍼컷·보디공격등으로 우세한 경기를 벌였다.

페더급서는 尹哲熙(동원)가 金賢泰(롯데)에 근소차로 판정승했다.

두선수는 경기가 끝날때까지 쉴사이없이 펀치를교환, 백중세를 보였다.

같은급의 金成洙(원진)는 초반 1·2라운드의 스트레이트 유효타를 살려 鄭義重(주승)의 막판 공세를 힘겹게 따돌리고 결승전에진출했다.

◇준결승 최종일

▲플라이 孫鍾國(대원공작) 판정 李在鎬(청소년)

▲밴텀 金熙石(상원) 기권 朴光求(광무)

金容雨(현대칼라) 판정 鄭癸來(극동중앙)

高鐵男(현대) 판정 崔鎬善(청소년)

▲페더 尹哲熙(동원) 판정 金賢泰(롯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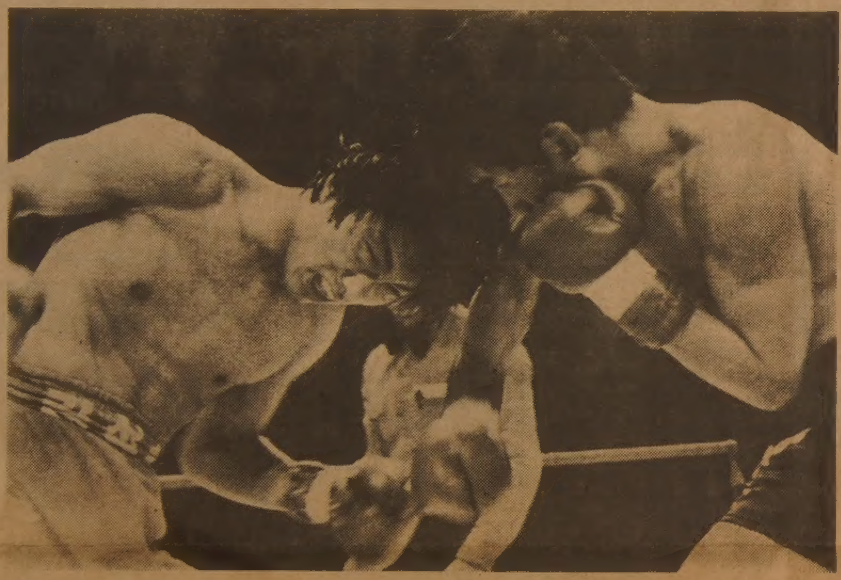
金成洙(원진) 판정 鄭義重(주승)

▲라이트 金鐵浩(극동중앙) 판정 吳泰日(주승)

朴永在(광무) 판정 申興植(극동서부)

▲웰터 李相鉉(동신) 판정 太愼盛(부산극동)

宋和永(여흥) 판정 柳寶錫(롯데)



◇強打에 일그러져… 페더급 준결승전에서 金成洙(원진)가 鄭義重(주승)의 라이트강타를맞고 휘청하고있다. 金이 판정승.

金煥珍, 王座탈환 실패

도까시끼에 力不足 判定敗

WBA J플라이

【東京=宋孝彬특파원】 한국의 金煥珍은 9일밤 교오또부립체육관에서 벌어진프로복싱 WBA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전에서 스피드와 기량열세로 日本의 챔피언 도까시끼·가쓰오에게 심판전원일치 판정패, 타이틀 탈환에 실패했다.

베도칼루신(파나마)은 148-143, 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 비야로보스(파나마)부심은 각각 148-141, 149-142로모두 도까시끼의 우세를 판정했다.

도까시끼는 81년 12월 金煥珍으로부터 타이틀을 빼앗은이래 4차 방어에 성공했다.

이경기서 노다운은 한번도 없었다.

13개월만에 王座복귀를 노린 金煥珍은 이번 패전으로 현역은퇴의 기로에 서게되었다.

이로써 한국프로복싱은 지난18개월간 세계도전에서 9連敗를 기록했다.

한국은 75년6월 柳濟斗-와지마·고이찌간의 세계타이틀전이후 韓日링대결서 통산 9승12패를 기록했다. 국내복서들의 세계타이틀전 역대통산전적은 31승3무4패. 【金仁奎 기자】

"솜방망이"훅에 守備허술, 스피드 달려

한국프로복싱 늪에서 허우적… 9連敗

…열세가 분명한 게 …나 金煥珍의 정신력은 높이 살만했다. 세계타이틀전에서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재삼 확인시킨 일전이었다.

金煥珍은 스피드에서 현저히 뒤졌으며 펀치의 정확도도 도까시끼에 미치지 못했다. 발빠른 도까시끼가 원투스트레이트, 어퍼컷, 좌우훅, 보디공격등 다양한 펀치를구사한 반면, 金은 단조로운 좌우훅 일변도였다.

이 훅으로는 상체를 크게 숙인 도까시끼를 효과적으로 공격할수가 없었다. 金煥珍의 가장두드러진 결함은 타법이다. 金의 훅은 끊어치지 않아 솜방망이와같은인상을 주었고 미는듯한 느낌이었다.

언제나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기술과 스피드가 뛰어나지 못하면 경량급에서 세계챔피언의 탄생을 기대하기는 힘들것이다. 설사 운좋게 챔피언이 된다하더라도 기량이 뒷받침하지 못해 단명챔피언으로 그칠 것이다.

高麗證券배구팀 創團

張允昌등 국가代表 4명포함

高麗證券남자실업배구팀이 12일 하오2시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張允昌(경기대) 柳重卓(인하대) 金仁玉 李元宰(이상 서울대)등 4명의 국가대표선수들을 포함한 7명의 우수선수를 스카웃한 高麗證券은 창단 첫해부터 남자실업배구에 돌풍을 몰고올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내남자 실업배구팀은 이달말 창단예정인 現代自動車 서비스팀과함께 모두 7개팀으로 늘어나게돼 그간 침체했던 남자배구가 큰 활기를 띠게됐다.

◇"스키는 내가 世界최고" 스위스의 베르비에에서 열린 월드컵 여자스키대회 대활강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이레네·에플레(中) 하니·벤첼(左) 티마라·매키니선수가 기뻐하는 모습. 【베르비에10日 UPI=聯合】

프로野球 冬季훈련 한창

OB는 사우디行, 三美는 강습회도

◆…三美슈퍼스타즈는 10일부터 오는2월5일까지 仁川구장내 비닐하우스 훈련장에서 仁川시내 국민교야구팀 7개팀, 중학4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야구기본기술강습회를 실시한다.

연고지역내 선수들의 교육을 위한 이번 강습회는 매일 상오9시부터 캐칭·볼(金殷榮감독) 타격(朴賢植) 베이스·러닝(李春根) 투수(李善德)등 4개부문으로 나누어 실기훈련을 갖는다. 三美는 참가팀당 야구볼 2타, 페넌트등을 선물한다.

◆…롯데·자이언츠는 10일 동계훈련에앞서 3박4일간의 정신훈련에 돌입. 서울올림피아 호텔에 캠프를 차린 롯데는 코칭스태프및 선수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정신교육·그룹사 소개에 이어 12일에는 泰陵에서 議政府에이르는 40km코스의 행군으로 극기정신을 기르게된다.

◆…OB·베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있는 斗山그룹산하 자매기업 동산토건 공사현장직원들의 위문을 겸해 朴容玟단장과 선수대표 尹東均이 승전보고차 출국.

한편 포수 金卿文이 질병으로 지난8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연수원에서 시작된 동계훈련에 불참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청소년축구팀 泰國대회 出戰준비 强訓

제1회 泰國국제청소년축구대회(28~2월10일·방콕)에 출전할 한국청소년대표팀은 10일부터 서울에서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제23회 아시아청소년대회에서 우승, 오는6월의 멕시코세계청소년대회 출전자격을 획득한 한국은 이번 泰國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泰國B·헝가리·폴란드·카타르(이상B조) 泰國A·中共·소련·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이상A조)등 9개국 10팀이 참가, 조예선을 거쳐 상위2팀이 결선에 오른다.

趙乃璧회장 유임 펜싱協會

대한펜싱협회는 趙乃璧회장(라이프그룹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새 집행부구성문제를 趙회장에 위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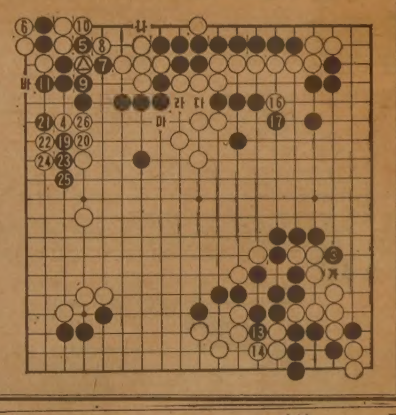
한편 펜싱협회는 11개국내대회, 泰國선수권대회등 5개국제대회 참가를 골자로하는 사업계획과 83년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5譜 103~127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張秀英〈1勝〉

黑(7段) 河燦錫〈1敗〉



전보에서 黑3으로 젖힌수는 이자체가 우변을 확보하고있으며 또 白이 손을뺄경우 언제든지 黑「가」로몰아 白3점을 잡아내는수도 있어서 굉장히 큰 곳이었다.

그러나 대세는 아직도 白이 유망하여 수월히 승리할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본보에 들어서자 白이 오히려 黑에게 절호의 추격찬스를 주고말았다.

黑3에 대해 손을 뺀것은 찬동할수 있지만 갑자기 白4로 좌변을 확장할 겸 중앙黑의 근거를 앗은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같은 값이면 한걸음 양보하며 白19정도라야 견실한것을 4자리까지 육박하는 바람에 黑19의수단이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白、過手로 逆轉

黑19에 앞서 5이하9의 패는 시기적절. 한동안 고집같은 패싸움이 계속되었는데 黑17로는 「나」로 젖힐수도 있었다.

黑「다」가 패감이고 白이 「라」로 응했을 경우 黑「마」도 패감이기 때문에 귀쪽패는 黑이 이길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河7단은 패를 급하다 보지않고있다.

黑19, 21때 白22가 과격해서 문제를 빚어냈다. 이수로는 뒤늦게나마 23자리를 막을 정도였고 그래서 白이 여전히 유망했다. 黑27로 패를 따낸데까지의 결과는 黑「바」가 절대선수여서 白22, 24가 쫓겨버린꼴이다. 이것으로 黑은 단연 우세, 일순에역전이다. 12, 18…△, 15, 27…5. 【一凡】

부드러운 겨울 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4>

『맥주를 한잔 더 갖다주시겠어요?』

수지는 피곤을 가장하기위해 손으로 이마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는게 어떻겠어요. 안색이 안좋으신데요』

흰머리는 헤프게 웃으며 분홍빛 포도주와 따뜻한 고기를 듬뿍 덜어왔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선 진작부터 자원봉사가 좀 유행입니까? 저희집 사람도 미국 있을땐 심심해 할 새 없이 봉사활동에 곧잘 참여하더니만 귀국하고나니까 언제 그랬더냐싶게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수다스럽고…』

『여보, 정사장님이 아까 하던 토론 마저 끝내라고 당신 부르고 계시잖아요. 저기서…』

눈 화장이 짙은 여자가 얼음만 남은 유리컵을 데까닥 소리가 나게 돌리면서 팔꿈치로 흰머리 남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무슨 얘기를 하다말았더라?』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나 없나, 뭐 그런 얘기같던데요』

『여보, 난 페미니스트야. 그건 당신도 알지?』

흰머리가 비틀대며 여자가 가리키는 쪽으로 갔다. 여자는 눈빛은 취기로 몽롱한데 눈화장만이 확고해서 가면같은 얼굴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깊이 패인 목둘레와 가슴은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왔다. 여자는 장난질하던 컵속의 얼음을 입안으로 넣고 소리내어 씹으며 말했다.

『내가 미국서 봉사활동을 했다구? 웃기네.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고 꼬박 삼년을 봉제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게 해놓고서. 하긴 그것도 봉사는 봉사지. 한국 남자들은 틀렸다구요. 제 여편네는 남편 뒷바라지 외엔 바깥세상은 모를수록 좋다는 식으로 길들여놓고선 좀 색다르게 사는 여자만 보면 금새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 앞에서 담박 제 여편네를 무시할 궁리부터 하니…』

여자는 혼잣말인지 수지들으라는 소린지 이렇게 지껄이고는 여자들이 모여앉은 데로 걸어갔다. 얇고 몸에 붙는 비단옷이 뒤로 길게 꼬리처럼 끌려 마치 인어가 유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흰머리내외를 마지막으로 아무도 수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외톨이가 되어 다 식은 고기를 씹었다. 깊이 모를 공복감이 그녀의 뱃속을 무두질했다. 그러나 음식을 더 가지러 일어서긴 싫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우아하게 움직이고 술잔을 부딪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했다. 빛깔도 가지가지의 마실 것들은 보석처럼 영롱했고, 테이블 가득히 차려진 찬음식들은 이름모를 이국의 꽃밭처럼 화려했고, 철판과 금속그릇속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고있는 더운 음식들은 식욕보다는 선남선녀들의 행복감과 즐거움을 돋우고 있었다.

즐거움에 냄새가 있다면 고기 익어가는 냄새를 닮았으리라. 수지는 이런 실없는 생각을 하며 분홍빛 포도주를 아껴가며 마셨다.

저만치서 수철은 술잔을 가볍게 쳐들어보이고는 만면에 사교적인 웃음을 바르고 뭔가를 열심히 지껄이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수지는 갑자기 사람들속의 수철이가 낯설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누구인가?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 어려움을 같이 나눌수있기를 믿고 찾아온 동기간에 대한 이런 낯설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일뿐인데도 그녀는 지독한 배반감을 느꼈다. 믿는 도끼에 가슴을 찢긴것처럼 똑바이었고 충격이었다.

Mont Tremblant

제2회 스키강습회

가족과 함께 스키를 즐깁시다.

● 때 : 83년1월28일(금) 저녁6시 출발, 30일저녁 귀가(2박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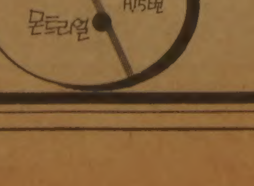
● 곳 : 몽·트랑브랑(Mont Tremblant)

(몬트리얼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회비 : 1인당 $219.00/14세미만 아동 $179.00(왕복 대절버스편, 2박 호텔료, 아침·저녁 총4회 식사, 환영파티, 스키·리프트 사용료, 안내원 동승, 스키지도 포함.)

신청처 : 한국일보사(533—2361) 세방관광여행사(928—3335) 브랜돈스포츠(598—3732)

집합장소 : 브랜돈스포츠사



＊4인 1실 사용 원칙.

＊스키렌트비는 별도.

＊선착순 40명.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스키협회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 담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더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5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 직원모집 ★
◉본사 광고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1)영주권 소지자.
(2)영어에 자신있는 자
(3)미술부문에 취미있는 자.
(4)운전면허 소지자
전화: 583-2363 한국일보 광고국장.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2살, 5살
전화 : 447-1460

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Mac's Milk Store)
Eglinton East & Laird Dr.
전화 : 421-1089

도넛숍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 하실분 구함.
전화: 690-3920 (B), 491-8734(R) Mr. 김

영주권 가지신 분으로 입주하여 애기봐주시며
가족같이 지내실분
전화 : 271-1482(낮), 274-5685(저녁)

초저녁 사무실청소 하실분.
전화: 368-8421

도넛숍 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경험 많은 여자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오후5시~11시까지 하실분(토·일 포함)
전화 : 625-1620

카운터 헬퍼구함. 영어 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바쁜 점심시간을 잘해내야 함.
전화 : 449-2012(7-10 pm) Mr./Mrs. Goomar

식당(32좌석) 누구든지 맡아서 운영하실분.
렌트: 월 $350. ◉527 Evans Ave.
전화: 823-5135(R) 691-6768(B) Mr. 김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유경험 Cashi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주방장과 요리사 구함.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 원함.
전화로 예약하세요. 755-3010 or 923-6026
Kyoto Japanese Restaurant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아침8시부터 8시간 6일 근무.
전화: 923-3939

구 직

템프로리 메니저자리 원함.
◉유경험자.
전화: 762-700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4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습니다.
전화 : 653-3105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동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션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30,000+스탁 렌트: $750
Bloor West 전화: 535-6838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5,500. 리스 : 4년+5년 옵션
◉주매상 : $3,500. 리스 : 4년+5년 옵션
A.E. LePage Real Estate
전화 : 741-9170 Mrs. 우

뱅쿠버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0,000+스탁
토론토전화 : 282-8066(Mr. 리)

가게달린 건물 매매
◉2층에 살림집(1200 sq/ft)
◉가게(1200 sq/ft) ◉지하실(1200 sq/ft)
◉가게리스는 금년 9월에 끝남.
◉현주매상 $4,000이나 더 Sale을 많이 올릴 가능성있는 가게임. 전화: 243-0233 Mr. 김

◉ZET Spray $150. ◉Pop 머신 $200.
◉Teyler Slush 머신 $6,000.(6개월 사용했음)
전화 : 282-3553(낮), 284-9325(저녁)

- Choice 레스토랑 비지네스와 부동산 매매
- Deli 커피숍. 주매상 : $3,000. 동쪽에 있는 바쁜지역. 쉽게 운영할 수 있음. 아스킹 : $72,500
- 상업용 2층 빌딩.
1층에 레스토랑 있고, 2층엔 2 Bed Rm.아파트 미래 년 렌트인캄 $13,800. 아스킹 : $134,500

전화 : 421-2214 Miss Cheng.
New Bliss Real Estate Co-operation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리스: 5년+5년. 아스킹: $10,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531-1005(Ralf)

Davenport & Christie. 3베드룸 타운하우스.
화장실2개. 센트럴·에어콘디션. 개스히팅.
황 순일 481-3443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넛숍
매상으로써 캐나다에서 최고수준의 주 $10,000
아스킹: $350,000. 년순수입: $150,000.
◉드라이크리닝 디폿(Depot)
한달순수입: $1,500보장. 혼자서 6일 오픈. 아스킹: $23,000
◉후라이드 치킨
주매상: $7,500 아스킹: 195,000 년순수입: 약 $100,000
◉미스터 씨업머린
주매상: $7,000 아스킹: 185,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225-1204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스킹: 3만6천+스탁.
전화: 820-7259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

1 Bed Room 세놓습니다.
(더퍼린 써브웨이 부근)
전화 : 536-8262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 n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 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최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밍크 앵콜 쇼-!

알리는 말씀

저희 미도파에서는
수차에 걸쳐 「**밍크쇼**」를 열어
다소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밍크및 모피를 교민 여러분들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캐나다에서 제일 권위있고
품질이 보장되는 유명업체
Einhorn Furs® 와
저희 미도파가 합작투자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어떤 「**모피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저한 아프터 써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미도파**」 모피공장
제품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읍니다.
계속 저희 「**미도파**」 모피공장 제품을
애용해 주시길 바라며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미도파 대표 **장 추 신 배상**

일시 : 1월10일(월)~24일(월)
영업시간 : 상오10시~하오9시
*단, 사업하시는 분을 위하여
일요일은 낮12시부터 6시까지 영업합니다.

Einhorn Furs®
TORONTO MADE IN CANADA
CANADA MAJESTIC MINK
◇30년 역사를 가진 캐나다의유수한
밍크공장 지정판매 대리점
Sawyer of Napa, Ltd.
◇최고급 남녀 양털코트및 반코트
지정판매 대리점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